이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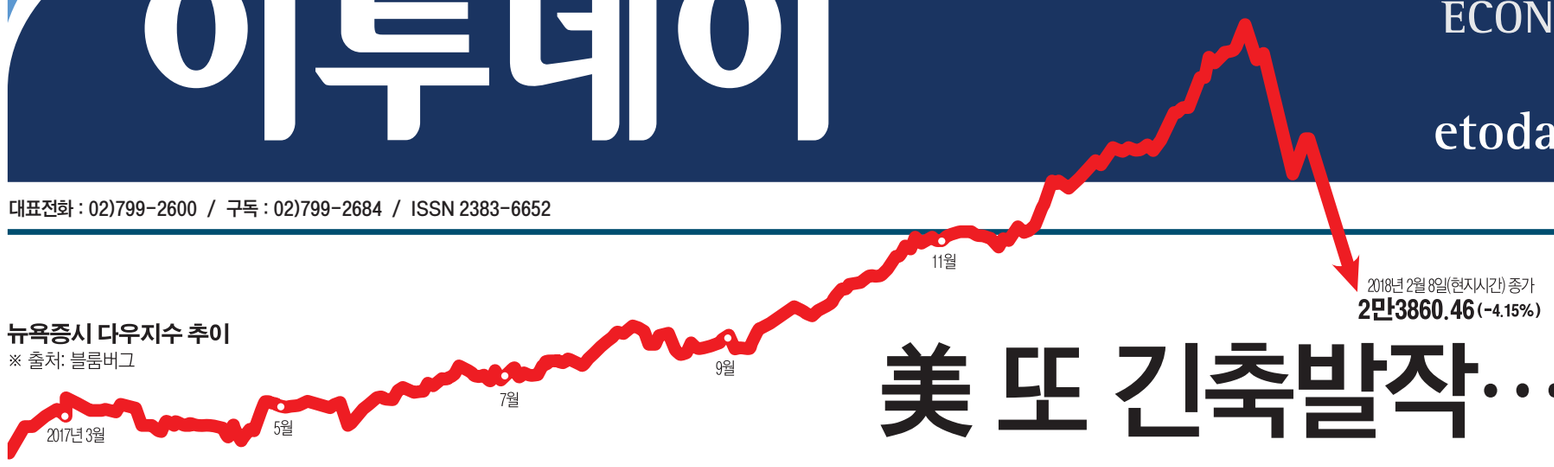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8년 2월 9일 금요일 제1829호

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BanKI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美 또 긴축발작… 다우지수 '녹다운'

'채권 버블 붕괴' 불안 높아지며
1000P 이상 하락… 4.15%↓
英 긴축예고에 유럽증시도 급락

미국과 유럽에서 긴축 신호가 선명해지면서 세계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긴축발작과 채권시장 버블 붕괴 불안이 고조돼 5일에 이어 또 한 차례 급락세를 연출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4.15%(1032.89포인트) 급락한 2만3860.46으로 마감했다. S&500지수는 3.75%, 나스닥지수는 3.90% 각각 하락했다. 특히 다우지수는 지난달 고점 이후 10% 넘게 빠지면서 조정 장세에 진입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의 긴축 예고에 유럽증시도 급락했다. 영국 런던증시 FTSE100지수는 1.49% 하락한 7170.69로 마감했다. 독일 DAX지수는 2.62% 급락한 1만2260.29, 프랑스 CAC40지수는 1.98% 떨어진 5151.68을 각각 기록했다.

영란은행은 이날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0.50%로 동결했으나 성명에서 '매파'적인 입장을 나타내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성명은 물가상승률을 의식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채권 금리 상승도 사흘 만에 재현된 뉴욕증시 패닉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고 CNN머니는 분석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2.88%까지 올랐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강화 불안감이 계속 채권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LPL파이낸셜의 라이언 디트릭 애널리스트는 "채권시장은 주식시장의 주요 관심사"라고 진단했다.

전날 여야 상원의원들이 2019년 9월까지 적용되는 장기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이 이날 채권 금리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상원의원들이 합의한 예산안에는 세출 상한을 2년 동안 3000억 달러(약 327조3000억 원) 증액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1430억 달러, 내년 1530억 달러 세출 상한이 각각 늘어난다. 그러자 예상 증액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대규모로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는 물량 부담에 따른 금리 상승을 유도했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전문가들은 상원의 합의가 재정 건전성에 위협을 주고, 채권 금리의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PNG인베스트먼츠의 리치 제리니 최고경영자(CEO)는 "이것이 끝은 아니겠지만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코스피도 수직하락 장 열리자 60P 뚝

뉴욕증시 '패닉'에 국내 증시도 맥을 못 추고 있다.

9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60.89포인트(2.53%) 급락한 2346.73으로 출발했다. 전날 가까스로 2400대를 회복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2300대로 고꾸라졌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였던 셀트리온의 이전 상장 효과도 글로벌 증시 여파에 묻혀버렸다.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43분 현재 49.44포인트(2.05%) 내린 2358.23을 기록하며 낙폭을 좁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세에 2400대 진입을 못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90억 원, 171억 원어치를 팔아치우고 있다.

전날 올 들어 두 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된 코스닥 역시 미국 증시 여파에 무너졌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3.46% 급락한 832.13으로 출발했다. 9시 43분 현재 20.96포인트(2.43%) 내린 840.98로 낙폭을 소폭 줄였다.

하유미 기자 jscs508@



"5G 기술 좀 봅시다" 글로벌 CEO, 평창으로

인텔·알리바바·노키아·퀄컴 등
ICT 수장 모여 '물밑협력' 가동



왼쪽부터 요시자와 가즈히로 NTT도코모 사장, 샹빙 차이나모바일 회장, 황창규 KT 회장, 마윈 알리바바 회장, 라지브 수리 노키아 CEO.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수장들이 대거 한국을 찾는다. 한국이 올림픽 기간 중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5G(5세대 이동통신)를 비롯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초고화질 영상(UHD) 등을 이용한 첨단 ICT 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5G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 업체들과의 '물밑 협력'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에 매츠 그랜리드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사무총장, 마윈 알리바바 회장,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인텔 CEO(최고경영자), 라지브 수리 노키아 CEO, 요시자와 가즈히로 NTT도코모 사장, 샤위에지와 차이나모바일 부총재, 리처드 위 화웨이 CEO 등이 방한한다.

평창올림픽 공식 통신 파트너사인 KT의 황창규 회장은 개·폐막식에서 주요 사업 파트너들을 초청해 개막식 참여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호스피(hospitality)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샤위에지와 부총재, 요시자와 사장, 그랜리드 사무총장, 수리 CEO 등과 만난다.

KT의 글로벌 파트너인 퀄컴, 에릭슨LG, 벤츠의 한국법인 CEO등도 참석 대상이다. 황 회장은 글로벌 파트너들과 개막식을 함께 관람하며 역대 올림픽 최초로 KT가 개막식에 적용한 5G 기술을 설명하고, 강릉 올림픽파크 내 KT 홍보관을 방문해 최신 기술을 체험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5G 시범서비스가 이번 올림픽에 세계 처음으로 등장하는 만큼 글로벌 기업 CEO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5G 구축을 위한 KT, SKT, LG U+ 등 국내 통신 기업들과 글로벌 ICT 업체 간 협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평창-평화'… 지구촌 축제 팡파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날이 밝았다. 이번 올림픽은 총 92개국 2925명의 선수가 출전해 동계올림픽 사상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9일 오전 강원 평창군 평창올림픽플라자에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는 성화대가 30년 만에 국내에서 타오를 성화를 기다리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多주택자 죈 작년末, 아파트 증여 껑충

양도세 부담 강남4구 중심 두 배↑

아파트 증여 거래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작년 말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온나라부동산 정보포털에 따르면 작년 12월 집계된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거래 건수는 1013건으로 전년 동월(567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 단위의 아파트 증여 거래는 5443건으로 같은 기간 794건 늘었다.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거래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2월 12.2%에서 작년 12월엔 18.6%로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4구'의 증여 거래가 큰 폭으로 늘었다. 서초구의 아파트 증여 거래는 작년 12월 83건이 발생해 전년 동월(34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강남구는 같은 기간 60건에서 192건으로 세 배 이상 늘었고, 송파구 역시 19건에서 51건으로 증가했다. 강동구는 48건에서 62건으로 늘었다.

아파트 증여 거래가 작년 말에 집중된 배경으로는 양도세 중과 부과에 대한 부담이 꼽힌다.

정부는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가산한다고 밝혔다. 2주택 보유자(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포함)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해 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은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옥죄기'에 들어갈 분위기가 퍼졌던 작년 말 주택 보유 수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매매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의 증여 거래가 보통 500~700건인 점을 고려할 때 작년 12월에 1000건이 넘은 것은 증여 거래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양도세 등 세금 이슈가 이어지면서 증여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정부 '바이오 빅데이터'로 新藥·일자리 만든다

산업부, 바이오·헬스 업계 간담회
환자정보로 질병예측·신약개발
주요 관련업계 "1.1兆 투자할 것"

정부가 병원에 축적된 방대한 환자 정보를 활용해 신약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만5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서 '바이오·헬스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종근당, 대웅제약, 메디아나, 삼성서울병원,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업계와 관련 기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 사업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현재 1.2%에 불과한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정부는 우선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반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6개 병원을 선정해 약 1000만 명의 전자의무기록·유전체·생체정보를 담은 '보안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병원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통계자료)만을 수요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빅데이터는 신약 후보 물질 발굴과 주요 질병 예측 등에 사용된다. 보안 핵심 기술인 바이오 데이터용 블록체인 기술도 개발한다.

고령자와 만성 질환자의 혈압, 혈당 등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건강 상태를 실시간 관리하고 이상 징후를 예측하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자동차, 통신, 정보기술(IT), 화장품 등 다른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운전자 건강정보와 자동차를 연계해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자동차에서 경보를 울리거나 긴급 SOS 호출 기능을 하는 '카(Car) 헬스케어', 노령자의 낙상 등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홈 헬스케어', 피부 유형별 맞춤 화장품 등이 대표적 비즈니스 모델이다.

정부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고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개인 건강정보, 날씨, 환경 등 모든 생활정보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강점과 기존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올해 지역별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

한편,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은 "올해 바이오 산업 주요 기업들의 투자 계획은 1조14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엘리 기자 ellee@

바이오 · 헬스 산업 발전전략

헬스케어 서비스
- 스마트 헬스케어 4.0 프로젝트 추진
- 빅데이터 기반 新서비스 창출

바이오 의약품
- 글로벌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추진
-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스마트 의료기기
- 병원 연계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
-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 바이오 · 헬스 혁신거점 육성
- 지역 바이오산업 특화 전략 추진


안정성 좇는데 해외손실 암초
대우건설 뱉어낸 호반 ▶9


"가상화폐 '不法' 접근은 곤란"
조두영 변호사 인터뷰 ▶15


설연휴, 해외든 국내든
"어디든 가즈아!" ▶17

모바일로 보는 이투데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토·일요일 신문은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계속

흉물도 '유산'이라고 남기라는 서울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시범지
소방차 진입로 확보 대책 전무
"석유비축기지, 문화기지 만들자"
지역민은 "혐오시설 보존" 불만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도 영향
전문가들 "보존 기준 명확해야"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흔적 남기기'에 지나치게 몰두해 주민안전 우려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골목길까지 기존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올해 안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용산구 후암동, 성북구 성북동 등 폭 1.5m남짓의 골목길의 본래 모습을 보존한 채 길가에 커뮤니티 공간, 마을 텃밭, 골목전망대를 조성해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전문가들은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화재 등 도시재생사업에서 고질적으로 제기돼 왔던 주거민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가 도시재생 관점에서 추진한 '흔적 남기기' 사례

옛 시설물	현재 재생했거나 추진 중인 시설물	남은 흔적
석유비축기지	문화비축기지	석유비축탱크 전체 보존
성수동 레미콘공장	서울에어팩토리(부지활용 공모전 진행)	공장 시멘트 사일로 및 집진기 설비 보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추진 중	기존 아파트 523동 존치 지침
개포주공4단지		기존 아파트 428동 존치 지침
용산구 후암동, 성북구 성북동 골목길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골목길 모습 원형 존치



서울시가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시범지역으로 발표한 용산구 후암동 두텁바위로 40길의 모습. 원안대로 기존 형태를 보존할 경우 화재 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후암동 두텁바위로40길은 폭 1~1.5m, 성북동 선잠로2길은 폭 0.6~2m의 골목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 골목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할 경우 소방차 진입은 불가능하다. 해당 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서울시 한 관계자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에서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한 골목길 확장 등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서울시 방침은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으로 인해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는 현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가 도시재생적 관점의 접근으로 흔적에 집착한 사례는 시설물 조성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등을 가리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져 인근 지역민들의 불만을 사온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마포 석유비축기지의 석유 저장탱크와 내외장재 등을 그대로 보존한 문화시설인 '문화비축기지'를 개관했다. 이달 2일에는 서울숲 인근의 성수동 삼표레미콘 이전부지 활용 계획 시민 공모전을 실시, 시멘트 사일로와 집진기 설비 등을 보존해 공기정화시설로 개조하는 안을 낸 응모작을 대상작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들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볼멘소리ㅌ가 이어진다. 마포구와 성동구 거주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는 "문화비축기지는 완공된 것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다. 너무 원형 그대로라 예산이 어디에 투입된 건지도 알 수 없다"거나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어야 재생의 의미가 있는데 혐오시설로 인식된 성수동 레미콘 공장을 그대로 되살리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등 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의 흔적 보존 의지는 사유재산인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까지 사업 향방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서울시는 1월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에 기존 아파트 523동을, 이달 초엔 개포주공4단지 조합에 기존 아파트 428동을 존치하라고 결정했다. 이들 단지 조합들은 서울시의 기존 동 보존 방침으로 인한 부지 손실이 사업 수익성에 끼치는 악영향 등으로 인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역시 현재와 같은 형태의 흔적 남기기 방침은 역사 보존의 의미로서도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역사 유물 등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에 대한 존치 원칙은 철저하다"며 "다만 존치 결정에 앞서 이것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인지 결정하는 논의 절차가 엄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데 국내의 경우 그런 시스템이 미비해 유산 보존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웅 기자 cogito@

넥슨 제친 넷마블… '모바일 퍼스트' 전략 通했다

지난해 매출 2.4兆…넥슨 '10년 아성' 무너뜨리고 先頭 올라
2·3위 넥슨·엔씨소프트도 모바일 게임 사업 강화 나서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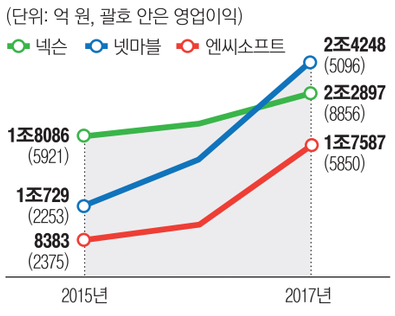
게임업계 빅3가 지난해 일제히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가운데 넷마블이 넥슨의 '10년 아성'을 무너뜨리고 국내 매출 1위에 등극하면서 업계 순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넥슨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8% 늘어난 2조2987억 원, 영업이익은 123%나 늘어난 8856억 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넥슨은 사상 처음으로 매출 '2조 클럽'에 진입하면서 선전했지만 넷마블의 기세를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다.

넷마블게임즈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이 전년보다 61.6% 늘어난 2조4248억 원, 영업이익은 72.9% 늘어난 5096억 원이다. 넷마블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동시에 매출 2조 원을 돌파했다. 이로써 넥슨은 2008년 이후 줄곧 지켜온 매출 1위 자리를 1200여억 원 차이로 넷마블에 내주게 됐다.

넷마블의 급성장세 비결은 블루오션으로 꼽히던 모바일 시장을 선점한 것이 주효했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넷마블은 2000년대 초반 온라인 게임포털로 시작해 2005년 '서든어택'이 대박을 터뜨리며 성장했다. 하지만 2006년 방준혁 의장이 회사를 떠난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자체 개발한 20여 종의 게임들은 모두 실패를 겪었으며 실적의 기둥 역할을 하던 서든어택마저 2011년 넥슨으로 서비스가 이전됐다.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복귀한 방 의장은 모바일게임 개발에 주력, 2013년 '마구마구', '모두의마블', '세븐나이츠', '몬스터길들이기' 등의 모바일 게임을 통해 성공을 거뒀다. 이후 '레이븐', '리니지2:레볼루션' 등의 게임이 국내외 시장에서 성공하며 게임 트렌드를 PC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옮겨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게임업계 빅3 실적 추이
(단위: 억 원, 괄호 안은 영업이익)



방 의장은 최근 열린 '제4회 넷마블 NTP' 행사에서 모바일게임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그는 "플랫폼 확장, 자체 IP 육성, AI게임 개발, 신장르 개척을 통해 글로벌 메이저 업체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넥슨과 엔씨소프트 역시 주력이던 PC온라인 시장에서 모바일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직원 중 50%가량을 모바일 부서에 배치할 정도로 모바일게임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지난해 전체 매출 중 24%에 불과한 모바일게임 매출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3위인 엔씨소프트도 지난해 매출이 1조7587억 원을 기록해 2조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엔씨소프트는 모바일게임 '리니지M'이 국내외에서 대박을 터뜨리면서 지난해 모바일 부문 매출이 2016년 총 매출액과 맞먹는 9953억 원(비중 57%)을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 상승률도 78.8%로 게임 빅3 중 가장 큰 폭을 기록해 올해 실적이 기대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미 신작 모바일게임 '블레이드&소울2', '리니지2M', '아이온 템페스트' 등 자체 IP를 활용한 13종을 개발 중이라 올해 시장에 임팩트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韓·美 금리 뒤집히는데 外人 자본 들어온다고?

차익거래 유인 0.76%P 11개월 만에 최고
금리差보다 커 외국인 유입 메리트 높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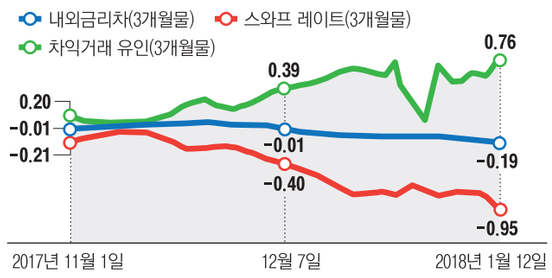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자본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은 되레 차익거래(재정거래)를 노린 외국인의 자금 유입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기준 통안채 3개월물에서 라이보(LIBOR) 3개월물을 뺀 내외 금리차는 -0.19%포인트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12월 7일(-0.01%포인트)부터 역전된 이래 역전 폭이 확산하고 있었다.

반면 현물환율과 선물환율 간 차이로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사정과 차익 거래 유인을 나타내는 스와프 레이트(Swap rate)는 -0.95%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 내외 금리차에서 스와프 레이트를 뺀 차익 거래 유인은 0.76%포인트까지 오르며 지난해 2월 22일(0.85%포인트) 이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내외 금리차만 보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스와프 레이트까지 감안하면 되레 외국인의 자금 유입 가능성은 높아진 셈이다.

내외 금리차 · 스와프 레이트 및 차익거래 유인 (단위: %, %p)



통상 스와프 레이트 급락은 외화자금 사정에 충격이 가해져 부족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다만 최근 급락세는 우선 보험사와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 투자가 늘며 스와프 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려는 수요가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또 작년 10월 이후 미국 달러화 약세,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에 따라 원화가 강세(원·달러 환율 하락)를 보이면서 비거주자의 차액결제선물환(NDF) 매도가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은행들은 NDF 초과 매입 포지션이 있게 되고 이 같은 포지션을 조절하기 위해 외화자금 시장에서 조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내외 금리차와 스와프 레이트가 같아야 하지만 수급 불일치에 따라 스와프 레이트가 급락해 차익 거래 유인이 커졌다. 이 같은 상황은 금리인상이 빨라질 것이라는 미국과 달리 1월 금통위 이후 한국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최근 더 확산하고 있다"며 "단기 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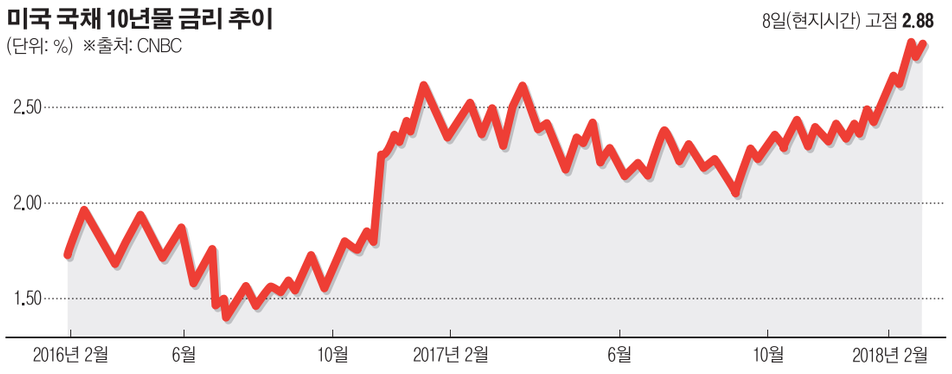
이 같은 상황은 미 연준(Fed)이 정책금리를 인상해 한·미 간 정책금리가 역전되더라도 한국은행이 곧바로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논리의 배경이 되는 셈이다. 실제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는 8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통화정책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채권시장과 본격 줄다리기”
글로벌 증시 ‘혼돈 속으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
(단위: %) ※출처: CNBC



뉴욕증시 사흘 만에 다시 급락 마감
런던·독일 등 유럽 주요지수도 하락

주요국 긴축신호에 채권금리 상승세
美 10년물 국채금리 3% 돌파 가능성

올 美기준금리 4차례 인상 전망까지

“투자자금 증시 이탈” 우려의 시선…
“약세장 전환 보기는 힘들다” 의견도


뉴욕증시가 8일(현지시간) 사흘 만에 다시 폭락한 가운데 트레이더들이 굳은 표정으로 작업하고 있다. 뉴욕/AP뉴시스

글로벌 증시가 극도의 변동성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글로벌 증시와 채권시장이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런 혼란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8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이 보도했다.

5일 블랙먼데이가 재연된 뉴욕증시는 사흘 만에 급락을 다시 연출했다. 이날 주요 지수는 크게 하락했고 월가 공포지수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VIX지수는 전일 대비 20.66% 상승해 33.46을 기록했다. 유럽증시도 장 막판에 급락세를 나타냈다. 영국 런던증시를 포함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전역에서 주요 지수는 하락 마감했다.

혼란에 빠진 증시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채권시장을 뇌관으로 지목했다. 주요국에서 긴축 신호가 강해지면서 채권금리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다. 채권 가격이 저렴해지면 투자자들이 채권시장으로 몰리고, 반대로 주식시장에서는 매도세가 나타난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의 마크 카바나 애널리스트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간의 밀고 당기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올해 2.9%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애널리스트들은 최고 2.98%에서 3.28%까지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장중 최고 2.88%까지 올랐다. 내셔널얼라이언스의 앤드류 브레너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36시간 안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9% 선을 뚫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다음 이정표는 3%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채권금리를 올리는 요인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 고용시장과 임금 등 경제 지표가 호조로 나타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종전 예고한 3회가 아닌 4회까지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빌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지금과 같은 회복세를 유지할 경우 올해 금리 인상이 네 차례가 되어도 정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PNG인베스트먼츠의 리치 제이니 최고경영자(CEO)는 “오랜 기간 사람들은 기준금리가 오르는 광경을 보지 못했다”며 “투자자들이 크게 반응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전날 미국 상원에서 여당과 여당이 세출 상한을 증액한 장기 예산안을 통과한 것도 채권 금리 상승을 부추겼다. 상원이 처리한 장기 예산안에는 2년간 3000억 달러(약 327조3000억 원)의 세출을 증액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세출 증액은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늘릴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고 물량 부담에 따른 금리 상승이 이어졌다. 카바나 애널리스트는 “지금 공화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크게 우려하던 재정 건전성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빌리FBR의 아트 호건 수석애널리스트는 “채권 금리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야 한다”며 “매도세가 집중되면 주요 지수는 급락한다”고 설명했다.

HSBC의 피에르 블란체트 애널리스트는 “특별한 방아쇠가 없는 한 이 같은 혼란이 종료되는 시점을 알기 어렵다”며 “폭풍우는 며칠 더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러나 시장이 약세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한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가 견고한 펀더멘털을 나타내는 만큼 장기간 지속한 강세장이 한순간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정부, GM에 한국지엠 출자전환·감자 요구 방침

“고통분담 없인 논의 진전시킬 수 없을 것”

정부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지엠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전에 GM에 감자와 출자전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주주인 GM이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증자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은 GM과의 협상에서 ‘대주주 책임론’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GM의 고통 분담 없이는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GM이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부실 기업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에 앞서 대주주 감자와 출자전환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주주 주식의 감자를 통해 주식 수를 줄이면 그만큼 납입자본금이 줄어서 감자 차익이 발생한다.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쓰는 방식이다. GM은 계열사를 통해 한국지엠 주식 3억1977만5649주(76.96%)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식을 15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으로 감자해야 할 것으로 정부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GM의 출자 전환도 이뤄져야 한다.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은 대주주가 부실을 떠안는 방식이다. 한국지엠의 2016년 말 기준 총차입금은 2조9704억 원이다. 2017년에는 이보다 규모가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1조 원 이상은 GM이 출자전환으로 해소해야 정부가 유상증자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지엠의 재무제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상증자와 같은 신규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가격, 매출원가 등의 경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GM은 그동안 회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해당 정보를 산은에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GM이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감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M은 신차를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유상증자에 국내 당국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다른 관계자는 “GM과의 협상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제안이 오면 그 제안을 분석한 뒤 우리의 입장을 정하고, 그 이후에 다시 협상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글로벌 점유율 1.2%… 멈춰선 바이오·헬스산업

대부분 중소·중견기업, R&D 투자 미흡… 각종 규제에 新산업 창출 한계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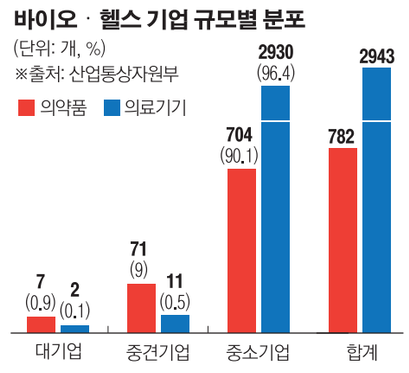
인구 고령화 속에 보건의료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전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는 1경174조 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반해 국내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1.2% 수준인 약 100조 원에 머물고 있다.

이는 좁은 국내 바이오·헬스 시장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정부의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시장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좁은 내수시장에서 다수의 기업이 경쟁하는 구조다. 바이오·의료 민간 벤처캐피털(VC) 투자는 2015년 기준 4686억 원으로, 약 9조 원 규모인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다 보니 전체 연구·개발(R&D) 투자 금액은 현저히 적다. 제약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노바티스는 11조 원의 R&D 비용을 쏟아붓고 있지만, 국내 제약사 전체를 합쳐도 R&D 투자비용은 2조 원으로 현저히 적다. 신약 개발에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고 비용도 최소 2000억 원에서 최대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기업은 세습 경영과 영세한 규모로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가 부족하다고 분석한다.

바이오 · 헬스 기업 규모별 분포
(단위: 개,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의약품 산업은 전체 생산 중 내수 비중이 81%이며, 복제약(제네릭)을 중심으로 내수에 치중하고 있어 신약개발 등 혁신 역량이 취약하다.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인 줄기세포 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개발에서도 배아줄기세포 연구 가능 범위가 희소병으로 제한돼 있고, 유전자가위를 활용한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가 암 등 심각한 질병으로 제한돼 관련 규제가 엄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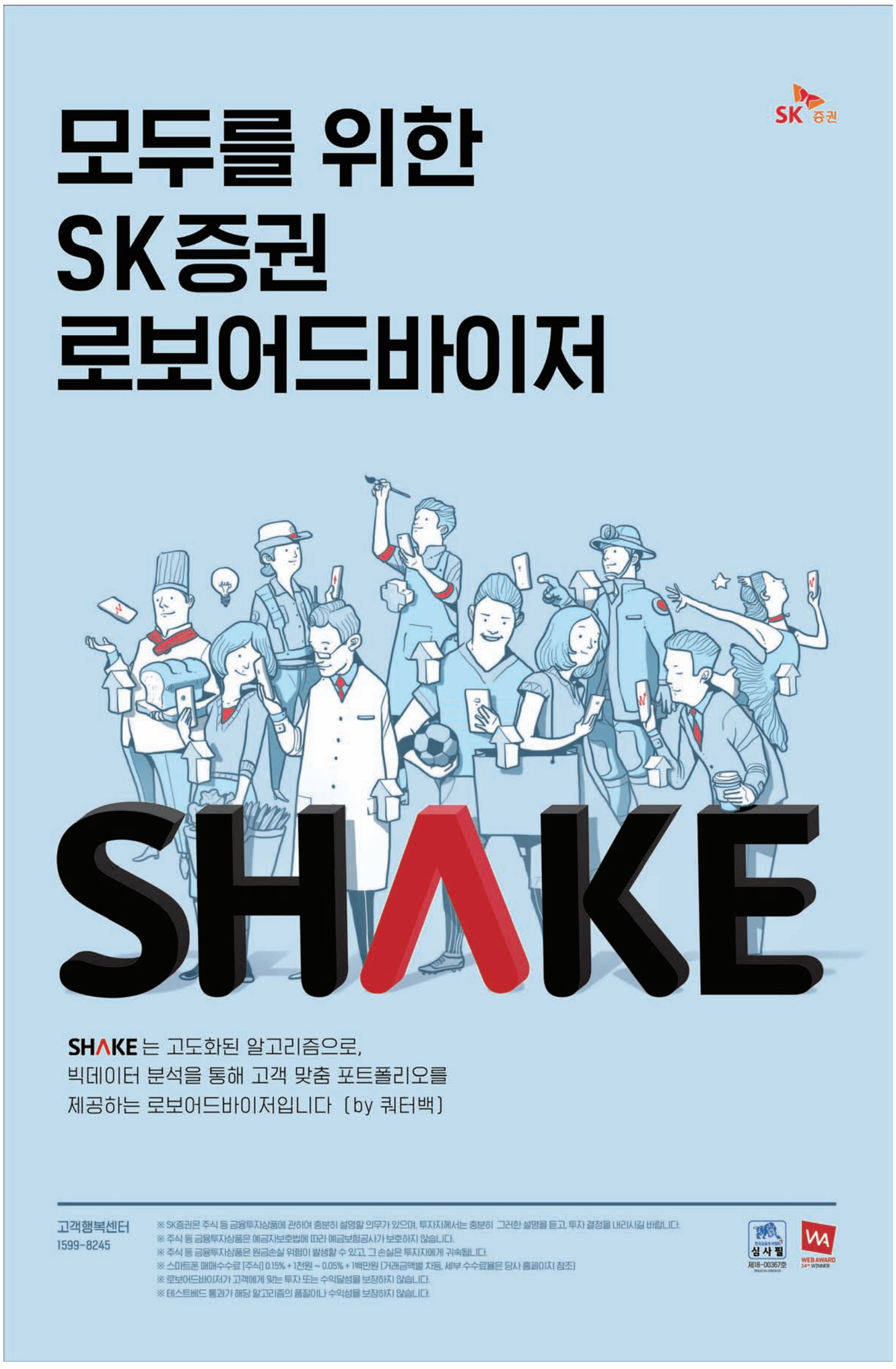
의료기기 산업 역시 좁은 내수시장을 두고 2943개 기업이 경쟁하는 구조로 대부분 업체가 영세하고 품질 경쟁력도 취약하다. 생산액 100억 원 이상 기업은 99개(3.4%)에 불과하고 생산액 10억 원 미만의 영세 기업이 2330개(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은 인체에 대한 위험도가 낮은 2~3등급 기기가 수출의 80%를 차지하는데, 부가가치가 낮은 중저가 의료기기 위주로 제품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국내 의료·건강서비스 시장은 규제 등으로 신산업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 규모는 73조9500억 원으로 세계시장(8600조 원)의 0.8%에 그쳤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정체된 원인으로 글로벌 선도기업 부재, 블록버스터급 신약개발 경험 전무, 민간 VC 투자 규모 부족, 과도한 규제 등을 꼽았다. 지자체의 경쟁적인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로 클러스터 투자 비효율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 영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해 바이오 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이다.

박엘리 기자 ellee@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내일 김여정과 오찬

北美 대화는 '글쎄'

어제 펜스 회동 때 별 언급 없이
"다각적인 대화 필요"만 밝혀
북측, 정상회담 제안 가능성 제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9일 오후 1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오찬 회동을 할 계획이어서 북한과 어떤 대화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부부장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도 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 파격 제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평양에서 김 위원장 전용기 '참매-1호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통해 인천공항에 오늘 낮 1시 30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며 "문 대통령은 10일 북측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장소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협의 중이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상급 경호와 예우를 고려할 때 청와대에서 열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 자리에서 김 부부장은 오빠인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파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동은 현재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과의 만찬 회동에서 북미대화 가능성 언급이 없었던 점에서 당장 북미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회동에서 "한·미 양국이 확고한 원칙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을 남북 대화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이끌어냈다"며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 대화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다각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점에서 간접적으로 북미 대화를 요청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에 이어 북핵 문제 해결 키를 들고 있는 북미 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날 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그간 누차 밝혔듯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이끌어낸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와 양국 간 실질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민 기자 lawsdm@

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野, '평창' 놓고 이념공세

한국당·바른정당 '김여정 訪南' 거론
국민의당은 "무엇을 말하냐가 중요"
민주당 "아직도 색깔론 펴나" 반박

야당이 9일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직전까지 이념 논쟁을 벌여 무리한 정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올림픽 개막 전부터 북한의 참가를 빌미로 정부·여당을 공격했다. 남북 단일팀 구성과 김여정의 방남(訪南)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은 평양에서 대대적인 열병식을 열고, 친동생 김여정을 대한민국에 내려보내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이 됐다"라며 "피땀 흘려 노력한 선수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 현송월 악단만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 세계인에게 과시하는 체제 선전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의 방문을 부각해 이를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한국당은 같은 날 논평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인인 대한민국이 북한에서 온 김씨 세습 왕조의 공주님에게 전부 강탈당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보수정당인 바른정당도 한미동맹 등 안보 문제를 이유로 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유승민 대표는 "김여정이 오는 목적은 대북 제재의 압박을 피하고 남남·한미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해체되면 안보 기반이 해체된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아무도 막지 못하면 결국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7일 논평에서 "누가 오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직접적인 비판을 피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색깔론'을 막는 데 총력을 집중했다. 추미애 대표는 전날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관람했다. 또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온 나라가 성공을 염원하는데 한국당은 아직도 색깔론을 계속 펴고 있다"며 한국당을 견제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배우자·아들 명의 발전소에 특혜 주고, 시공업체서 금품 받고

韓電 태양광발전 사업 '非理 백태'

감사원, 47명 징계 요구·4명 검찰수사 요청…한전 "제도 개선 추진"

태양광 발전 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내와 아들 명의의 발전소에 특혜를 주거나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한전은 규정상 직원의 영리 목적 사업이 금지돼 있다.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 4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25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비리 혐의가 커 해임 요구된 한전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도 의뢰했다.

주요 비리 사례를 보면 한전 지사의 차장급 간부는 2014년 8월 자신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된 태양광발전소를 포함해 25개 발전소를 기술 검토 없이 한전의 송·배전 계통에 연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 이 차장은 또 2016년 1월 아들 명의의 태양광 발전소 1개를 다른 업체에 1억8000만 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2억5800만 원을 받아 차액 7800만 원을 따로 챙겼다.

한전 지사장을 지낸 또 다른 간부 직원 역시 2016년 3월과 7월 태양광 발전 시설업체로부터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소 2개 등이 포함된 14개 발전소의 기술검토 신청 서류가 접수되자 담당자로부터 연계 가능 용량을 초과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연계 처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본부장급 고위 간부는 모 지역 한전 지사장으로 재임하던 중 2014년 8월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발전소 3개를 배우자와 두 자녀 명의로 매입하고, 구매 절차 등을 모두 업체가 대행하도록 하는 등 직위를 남용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1MW이하 용량의 태양광 발전에 대해 무조건 계통 연계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연계 제한에 따른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며 "태양광발전 사업 신청 시 가족 중 한전 재직 임직원이 있을 때 자율 신고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전력은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한 뒤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향후 감사원 요구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태양광발전사업 업무처리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韓銀 국장급 인사 "정책보좌관 핵심 맞네"

이상형, 금융시장국장으로 이동…후임에 이중식·민좌홍



이상형 신임 금융시장국장



민좌홍 신임 정책보좌관

한국은행에서 정책보좌관 자리가 핵심 요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8일 한은이 단행한 국장급 인사에 따르면 신임 금융시장국장에 이상형 정책보좌관이 이동했다.

정책보좌관은 이주열 총재 취임 직후인 2014년 상반기 새로 생긴 자리. 총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자리로 각종 연설문 등 총재의 대외활동 등에 역할을 해왔다. 초대 정책보좌관인 신호순 부총재보는 정책보좌관에 이어 금융시장국장, 금융안정국장 등 요직을 거쳐 임원에 올랐다.

2대 정책보좌관은 현재 한은 핵심국인 통화정책국을 맡고 있는 박종석 국장이다. 3대 정책보좌관은 최근 인사에서 인사경영국소속으로 물러난 임철재 국장이 맡았었다. 다만 개인적 사정으로 중간에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4대 정책보좌관은 이번에 금융시장국장으로 이동한 이상형 국장이 맡았었다. 5대 정책보좌관에는 이중식 워싱턴주재원과 기획재정부와 국장급 교류로 파견갔던 민좌홍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이 이번에 복귀하면서 공동으로 맡게 됐다.

이중식 신임 정책보좌관은 김중수 전 총재 시절 승승장구했던 인물. 지난달 30일 이 총재의 마지막 정기인사에서 화합 차원에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됐다. 민 신임 정책보좌관 역시 금융시장국 등 주요 요직을 거쳤던 인물이다.

후임 기재부 파견에는 황인선 전 국고증권실장이 유력하다. 현재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심사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조사국장을 맡아왔던 장민 국장은 원래자리인 한국금융연구원으로 돌아간다. 장 국장은 2015년 1월 28일 당시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에서 신임 한은 조사국장으로 내정됐고, 그해 3월 초부터 직무를 수행한 바 있다. 당시 한은의 경제전망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인사를 충원하는 차원이었다. 그의 임기는 다음 달 1일까지다. 현재 한은에 휴가를 낸 상태로 금융연구원 복귀를 준비 중이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法案小委는 거부하고… 국회 파행 속 기재위 연 한국당

여론 의식 '전면 보이콧'서 전략 수정…법사위도 안 열려 입법 표류

2월 국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다. 한국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거부)에서 한발 물러서 법안소위 불참을 전략으로 수정하면서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서는 이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가상화폐 대책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한국당은 모든 상임위를 비롯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계획이었으나 법안소위 불참으로 보이콧 범위를 좁혔다. 이는 민주당이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보이콧을 시작해 법안 처리가 막혔음을 강조하면서도 민생법안 책임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주무 부처 장관 등의 현안질의와 업무보고 등을 진행하는 상임위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작 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규제 샌드박스 등 중점 법안처리부터 6·1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개헌 논의까지 모두 막히게 된다.

한 여당 의원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시급한데 정작 소위는 열리지 않고 법사위도 가동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러다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직전에야 일이 몰려 제대로 법안을 논의하지 않고서 부랴부랴 처리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2월 국회의 혹한기가 예상되면서 법사위에 계류된 780개의 법안도 뒤로 밀렸다. 법사위를 포함해 20대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8500건이다. 이 중에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근로시간 단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쟁점 법안과 상가권리금 보장을 확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계류돼 있다. 정부에서 준비 중인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 논쟁과 묶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하늬 기자 honey@



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업가치 헌법반영 1000만명 서명운동 달성 기념식에 설훈 농해수위원장(왼쪽 여섯 번째), 김재경 정개특위원장(왼쪽 일곱 번째),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왼쪽 여덟 번째) 등이 참석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사진제공 농협중앙회

"農業 가치 憲法 반영"…농협, 1000만명 서명 국회에 전달

농협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이를 달성해 국회에 전달했다.

9일 농협에 따르면 농업가치 헌법반영 범농업계 추진연대는 전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범국민 공감대회를 열고 1000만 명 서명운동 달성 기념식과 국회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헌법 반영에 대한 공감대를 전 국민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국회, 학계 등에서 4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인사로는 추진연대 공동대표인 박행덕 농민의길 상임대표,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김지식 한국농업 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등 5인과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재경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농협을 주축으로 한 추진연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1000만 명의 서명지를 정개특위 김 위원장과 농해수위 설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농업인단체와 소비자단체는 농업가치 헌법반영 연대사를 낭독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물가 낮은 수준 아니다"

규제가격 제외 근원인플레 2% 근접

물가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국내총생산격차율(GDP갭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상황에서 물가상승 압력은 점차 가시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8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경직적 물가지수, 내수물가압력지표 등 여덟 가지 근원인플레이션 지표를 평균한 통상적 근원인플레이션은 1%대 중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

반면 여기서 공공서비스와 전기·가스 요금, 담뱃값, 급식비, 보육비 등 규제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 지표는 2%를 소폭 밑돌고 있었다. 2015년 말을 전환점으로 반등하다 최근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또 규제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은 국내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GDP갭률에 3분기 정도 후행하는 특성을 보였다. 한은은 이미 GDP갭률이 소폭이나마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3분기부터 물가상승 압력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2022년까지 老人일자리 80만개 확대

복지부 2차 사회활동 종합계획

사이버대학 등 협력 직업 프로그램 개발

개인별 역량 맞춤 발굴 매칭서비스 제공

우수노인고용기업엔 사회보험료 등 지원

정부가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80만 개로 확대하기 위해 개인별 맞춤 일자리를 발굴해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2022 제2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제2차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은 노인 일자리 80만 개 제공,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확립, 노인 역량 강화,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2013~2017 제1차 종합계획'은 노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43만79000의 일자리가 제공됐다.

정부는 앞으로 참여자의 역량과 직무를 평가하고 개인별 활동계획서에 기초해 적합한 일자리에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직무역량지표를 개발하고 사이버대학, 직업전문대학 등과 협력해 노인 대상 전문적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개인별 역량에 맞는 적합 일자리를 발굴해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해 지역 내 일자리를 발굴하고, 발굴된 정보를 현행 노인 일자리 포털인 백세누리 시스템에 등재해 산재한 일자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노인복지관 및 시니어클럽을 매칭플러스센터로 지정해 개인별 활동계획에 기반한 상담, 교육·취업 연계, 사후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 생산품의 낮은 인지도 및 판로 제한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 노인 생산품을 공동 브랜드화하고,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까지 판로를 확대한다.

능력 있는 노인이 민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단순 노무적 일자리 제공에서 탈피해 전략직종 및 장기 채용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숙련 기술직 은퇴자가 청년에게 기술·기능을 전수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도 지원한다.

노인을 다수 고용한 기업을 우수노인고용기업으로 인증하고, 노인을 추가로 채용 시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공헌을 희망하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임인택 노인정책관은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어르신들이 더 오랫동안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계획이 노인의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평 기자 pepe@

감정노동 보호·발주자 책임 강화
産安法 28년 만에 '대수술' 추진

근로자 안전·생명 보장 일터 조성

2022년까지 사망사고 절반 감축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발주자의 책임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981년에 제정됐다.

이번 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이후 발표한 중대재해 종합대책, 타워크레인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등의 내용 중 제도 개선과제를 모두 담았다.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아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일 목표를 정했다.

위험에 노출되는 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중 종속성이 강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에 대해서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근거 마련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 등 현행 도급인가 대상 작업의 도급을 금지한다.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로 확대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가맹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책임을 부과한다.

또 작업중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박은평 기자 pepe@

설 명절 어떤 한복 입을까?



설 연휴를 1주일 앞둔 8일 서울 중구 남대문 한복 상점을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종류의 한복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警, 삼성 4000억 규모 차명계좌 260개 확인

이건희 회장·회사 자금담당 임원

조세포탈 혐의 적용 입건… 檢 송치

경찰 수사에서 새로 발견된 삼성그룹 차명계좌 규모가 4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삼성그룹이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 이건희 회장과 사장급 임원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삼성 총수 일가 자택 공사와 관련한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 차명계좌가 다수 존재한 정황을 포착해 탈세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 국세청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경찰은 이 회장과 그룹 자금 담당 임원 A 씨가 그룹 임원 72명의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만들어 자금을 관리하면서 2007~2010년 이 회장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 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이번에 발견한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삼성그룹은 2011년 해당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 1300억여 원을 납부했고, 2014년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명계좌에 자금이 유입된 시기를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로 추정했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2007년 이후 행위에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고, 관련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아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회삿돈을 차명계좌에 비자금으로 빼돌리는 횡령·배임이 있었을 개연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돼 수사가 더 나아가지 못했다.

삼성 측은 차명계좌 자금의 정체에 대해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KAI 비리' 협력사 대표 징역 3년 선고

34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KAI 비리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된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8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AI 전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D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 일부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전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황 씨는 장기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34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고 주식인수대금을 취득했다"며 "이런 범행은 조세 정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훼손한다"고 질책했다. 다만 "분식회계가 없는 D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산정 시 사기부정 거래로 취득한 이익이 취득대금 전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부정거래로 얻은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2011~2015년 661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KB금융, 9년 만에 '리딩뱅크' 탈환

공격적 M&A로 수익 기반 넓혀
작년 순익 3조3119억 54.5% 늘어
시총·주가·순익 '트리플 크라운' 달성
2011년 신한 이후 '3兆 클럽' 첫 진입
신한銀, 하나銀에도 밀려 업계 3위로

2017년 4대 금융지주 실적 (단위: 원, 주가: 2017, 2018년 2월 기준) ※ 출처: 각 사

	2016년			2017년		
	당기순이익	주가	시가총액	당기순이익	주가	시가총액
KB금융	2조1437억	**4만7800**	19조9857억	3조3119억	**6만1400**	25조6720억
신한지주	2조7748억	**4만6100**	21조8606억	2조9179억	**4만9600**	23조5203억
하나금융	1조3305억	**3만5350**	10조4637억	2조368억	**4만9050**	14조5042억
우리은행	1조2613억	**1만3400**	9조584억	1조5121억	**1만5200**	10조3090억

KB금융지주가 지난해 당기순이익·주가·시가총액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손보·캐피탈 등 자회사 편입 효과에 지주사 출범 이래 처음으로 순이익 '3조 클럽'에도 진입했다. 그동안 리딩뱅크 자리를 수성하던 신한금융지주는 2위로 내려 앉았다.

◇KB금융, 9년 만에 1위자리 탈환 = KB금융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보다 54.5%(1조1682억 원) 증가한 3조 3119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지주사 설립 이래 최대 실적으로 9년만에 '리딩뱅크' 자리를 탈환했다.

두 금융지주의 희비를 가른 것은 KB금융의 공격적 M&A 효과다. 윤 회장은 2014년 취임 후 "1등 그룹의 위상 회복"을 강조하며 LIG손해보험과 현대증권을 인수하는 등 비(非)은행 계열사의 수익 기반을 넓혀왔다. 지난해 KB증권과 KB손해보험은 각각 2717억 원과 330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생명은 지난해 순이익이 각각 2119억 원, 1206억 원에 그쳤다.

주력 계열사인 은행의 수익성 차이도 한몫했다. KB국민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조 175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5.6%(1조2107억 원) 증가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1조71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 줄어들다. 희망퇴직금, 대우조선해양 및 금호타이어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일회성 비용 4500억 원이 반영된 결과다.

여기에 KB금융은 주가·시가총액에서도 신한지주를 넘어서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9일 기준으로 주식 시장에서 KB금융 주가는 6만 1400원으로, 신한은 4만9600원으로 마감했다.

KB금융 시가총액은 25조6720억 원, 신한금융은 23조5203억 원으로 2조원 이상 벌어졌다.

◇신한은행, 실적 하나에 뒤져…하나금융 '2조 원 클럽' 안착 = 4대 금융회사의 순이익은 10조 원에 육박하며 호조세를 보였다.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금융지주와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9조77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대 금융사의 순이익 7조5103억 원 대비 30%(2조2684억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전년 대비 11.2%(2조6136억 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KB국민은행의 NIM(순이자마진)은 1.71%로 전년 말 대비 0.13%포인트 올랐다. KEB하나은행도 1.53%로 0.15%포인트 상승했다. 신한은행은 1.58%로 0.09%포인트 올랐고 우리은행은 1.47%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하나금융은 2005년 지주사 설립 이래 처음으로 2조원 클럽에 동참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조368억 원으로 전년(1조3727억 원) 대비 53.2% 급증했다. KEB하나은행은 순이익 2조 1035억 원을 내면서 처음으로 신한은행을 제치고, 업계 2위 자리에 올랐다.

우리은행은 2012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실적을 냈다.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 대비 19.9%가 늘어난 1조 5121억 원을 기록했다.

안철우 기자 acw@
김보름 기자 fullmoon@

5대 금융사 지배구조 (주요 위원회 CEO 포함 여부) ※ 출처: 각 사

이사회 내 위원회	KB금융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회장후보추천위	**O**(추후 제외)	**O**	**X**(사외이사 전원)	임추위 (**O**)	임추위 (**X**)
사외이사후보추천위	**X**(사외이사 전원)	**O**	**X**(사외이사 전원)		
감사위원후보추천위	**X**(사외이사 전원)	**X**(사외이사 전원)	**X**(사외이사 전원)		

당국, 우리銀 지배구조 검사 배제 왜?

사외이사·감사선출 임추위에 행장 포함
他은행과 달리 주주가 사외이사 추천해
일각선 "핵심문제 질타 고려 형평성 어긋나"

우리은행이 행장과 사외이사 등 주요 경영진을 선출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현직 행장이 포함돼 있지만,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검사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사만 검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그동안 주요 임원 선출에 현직 최고경영자(CEO)가 관여하는 것이 지배구조의 문제로 질타해온 만큼 우리은행을 검사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행장과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후보군을 관리하고 선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현직 행장이 당연직(상임이사)으로 포함돼 있다. 우리은행 임추위원은 총 6명인데 5명은 과점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 나머지 1명은 현직 행장이다. 우리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에도 '임추위에는 은행장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그간 KB금융, 하나금융 등 금융지주사들이 주요 임원 후보를 선출하는 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 회장후보추천위 등)에 회장을 포함시켜 당국으로부터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받은 것과 동일한 경우다.

우리은행은 타 지주사보다 지배구조 면에서 낙후된 부분도 있다. 다른 지주사는 내부 감사를 집행하는 감사위원을 뽑는 자리에 회장이 제외돼 있다. KB금융, 하나금융, 신한금융은 감사위원후보추천위를 사외이사만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감사위원후보위원회에 행장이 포함돼 있다. 우리은행처럼 최고경영자와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임추위라는 단일 기구에서 선출하는 농협금융지주도 임추위에 회장은 제외돼 있다. 사내이사 자격으로 지주 부사장이 포함돼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이 지주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배구조 검사에서 제외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지주사 9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검사에 돌입했다. 대상은 신한, KB, 하나, NH농협, JB, BNK, DGB, 한국투자, 메리츠 금융 등 9곳이다. 금감원은 지난 2일까지 2주간 농협, JB, 메리츠 금융 등 3곳에 대한 검사를 끝마쳤다. 나머지 6곳은 설 이후, 이르면 이번 달 말께 검사에 들어간다.

금융당국 검사에 발맞춰 KB금융과 하나금융은 사추위와 회추위에 현 회장을 제외하겠다고 한 상태다. 하나금융은 이미 이사회 의결로 김정태 회장을 두 위원회에서 배제했다. KB금융은 8일 사추위에서 윤종규 회장을 제외했고, 회추위에서는 주주총회 때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과 달리 우리은행은 각 주주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구조인 만큼 행장 1인이 (행장과 사외이사 후보추천 과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선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주사가 아닌 우리은행은 검사에서 제외했고, 나중에 은행만 따로 할 순 있지만 현재로선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삼성생명·화재 사장에 현성철·최영무 내정

'세대교체'·'성과주의' 반영
금융계열사 체계 개편 신호탄
원기찬 삼성카드사장 유임


현성철


최영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신임 대표이사에 현성철(58) 삼성화재 전략영업본부장과 최영무(55) 자동차보험본부장이 내정됐다. 금융계열사 체계 개편을 위한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삼성카드와 삼성증권 인사도 곧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유임하고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가 삼성증권 사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8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현성철 삼성화재 전략영업본부장과 최영무 자동차보험본부장을 내정했다. 양사 모두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에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이번 내정을 두고 최근 삼성그룹 인사에서 드러났던 키워드인 '세대교체'와 '성과주의'가 반영됐다는 풀이가 나온다. 삼성은 지난해 10월 이후 이뤄진사장단 인사에서 계열사 대표이사를 50대로 대거 교체했다. 이번 금융 계열사 인사에서도 김창수(63) 삼성생명 사장과 안민수(62) 삼성화재 사장의 후임자로 50대로 선임했다

업계는 현 내정자와 최 내정자는 그동안 경영성과를 보이며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평가받는다. 현 내정자는 연세대를 졸업한 뒤 삼성SDI 구매전략팀장, 마케팅실장, 삼성카드 경영지원실장, 삼성화재 전략영업본부장 등을 거쳐왔다. 최 내정자는 고려대 출신으로 삼성화재 인사팀장, 전략영업본부장, 자동차보험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본격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 대응, 2021년 새 회계기준(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신임 사장들에게 주어진 가장 무거운 과제"라고 짚었다. 나머지 금융계열사인 삼성증권은 9일, 삼성카드는 13일에 임추위 열고 새 내정자 선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50대인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유임하고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가 차기 삼성증권 사장에 내정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신협중앙회 회장에 김윤식 세림신협 부이사장 선출



신협중앙회 제32대 회장에 김윤식〈사진〉 대구 세림신협 부이사장이 선출됐다.

신협중앙회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신협연수원에서 제45차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김윤식 대구 세림신협 부이사장를 제32대 중앙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비상임 체제로 수협중앙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2014년 신협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의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김 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임기 내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에 급급하기 보다 신협 100년 대계를 그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항상 회원 조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신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 △조합 여신시장 확대 △조합 지원 강화를 위한 중앙회 조직의 혁신 △중앙회 자산운용의 투명화 및 수익극대화 △탕평 정책 통한 지역균형 인사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조합 서비스 강화 △역량 있는 인사로 구성된 신협 정책지원 특별위원회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신구대학교를 졸업해 신협 대구지역협의회장,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신협중앙회 이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효성청과 대표이사, 호텔아리아나 대표이사 등을 겸임하고 있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이날 회장 선임과 함께 13명의 이사도 선출했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SHINHAN
신한카드 인도네시아 | Dhia Nabilla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가
신한으로 연결된거죠
대한민국에서 온 금융이
인도네시아에 뿌리를 내려
새로운 가능성을 퍼뜨리고 있으니까
두 나라가 함께 더 강해질겁니다
나는 新韓人.입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데이타시스템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프라이빗에쿼티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 신한금융그룹

금호석화·産銀 '상표권' 新동맹? … 금호타이어 매각도 탄력

금호 상표권 분쟁 일지

2013년 09월 11일	금호산업, 금호석유화학에 상표권이전등록 청구소송 제기
2015년 07월 17일	1심 금호산업 패소 판결
2015년 08월 31일	2심 사건 접수
2016년 06월 16일	조정절차에 회부
2017년 08월 28일	조정 실패로 변론재개 결정
2018년 01월 18일	2심 판결 선고기일 연기
2018년 02월 08일	2심 금호산업 패소 판결

금호-산업은행 분쟁 일지

2009년 12월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신청
2010년 1월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개시
2010년 5월	박삼구 회장에 우선매수권 부여
2014년 12월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졸업
2016년 2월	채권단 지분 매각 공고
2017년 1월	우선협상자에 중국 더블스타 선정
2017년 3월	박삼구 회장, 컨소시엄 구성 검토 요청
	채권단-더블스타 SPA 체결
	채권단, 박 회장 컨소시엄 구성안 거부
2017년 9월	5일 더블스타 매각 무산
	26일 채권단 금호타이어 자구계획안 거부
	자율협약에 의한 정상화 방안 추진
	박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만나 경영권 · 우선매수청구권 포기
2017년 10월	26일 업은행, 금호산업에 우선매수권포기 확인서 요청
	금호타이어, 금호산업에 상표권 무상 사용 요구
	30일 금호산업, 산업은행 및 금호타이어 요구 거부
2017년 11월	2일 산업은행, 상표권 사용 협조 재요구

금호석화 금호상표권 승소
공동 소유권도 인정받아
금호그룹 "즉시 상고" 입장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둘러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산업은행 간의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금호 상표권에 대한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의 법적 분쟁에서 금호석유화학이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은행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금호석화가 금호상표권에 대한 공동소유를 인정받게 되면서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호 상표권' 판결, 금호그룹은 상고 의사 밝혀 = 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지분 이전등록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금호석화 측은 금호석화와 금호산업 간 상표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은 사실상 최종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최근 대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수익과 관련해 비판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분쟁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은행, 금호타이어 매각 탄력받나 = 박삼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과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산업은행은 이번 판결에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우건설 매각 불발로 궁지에 몰린 산업은행으로서는 이번 항소심 결과가 지지부진한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산업은행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빌미로 과거 금호타이어 매각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갈등을 보였을 당시 박찬구 회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만나 "상표권 문제가 정상화에 부담과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영구사용권을 허용하는 등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앞서 금호석화가 금호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번 판결로 인해 금호타이어 정상화 이후 이뤄질 매각 작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금호그룹과 상표권 분쟁에 관해서는 "금호타이어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며 "관련 논의는 잠시 미뤄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석화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상표권의 법률상 등록권자로서 또 다른 등록권자인 금호산업, '금호' 상표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와 합리적인 상표권 사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선영 기자 moon@

현대重, 친환경·스마트 DNA로 뱃머리 돌린다

IMO 오염물질 규제 강화 대응
자체개발 '밸러스트 프리' 적용
디젤-LPG 이중연료사업 진출
롤스로이스 해양사업부도 군침



250톤 이상의 앵커 핸들링 작업을 위해 롤스로이스가 고안한 UT 790 WP.

현대중공업그룹이 선박 사업에 친환경·스마트 DNA를 심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하고 있는 오염물질 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친환경·스마트 선박을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로 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현대중공업이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개발하고 있는 롤스로이스 해양사업부 인수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8일 독일 '버나드숄테'사의 7500m³ 급 LNG 벙커링선에 자체 개발한 친환경 기술인 '밸러스트 프리(Ballast Free)'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밸러스트 프리는 해양생태계 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선박평형수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친환경 신기술이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밸러스트 프리같은 친환경 기술은 IMO가 지난해 9월부터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WTS) 의무설치 규정을 발효한 이후 전 세계 조선·해운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회사 측은 "이 기술을 적용한 선박은 환경보호, 건조 비용 감소, 적재공간 증가, 에너지 사용량 감소 등의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디젤-LPG 이중연료엔진 사업에 뛰어들었다. IMO가 내놓은 '선박 대기오염 방지 규칙'에 대비하고, LPG 추진 엔진 개발을 앞당겨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IMO는 2020년부터 황산화물 배출량을 현행 3.5%에서 0.5%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LPG를 사용한 이중연료엔진은 디젤을 연료로 사용할 때보다 질소산화물(NOx)은 20~30%, 황산화물(SOx)은 90~95% 적게 배출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선박 스마트화 사업에도 힘을 주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정기선 현대중공업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선박관리 서비스와 스마트십 개발 등 신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대글로벌서비스에 오너가 3세를 전면에 내세우며 선박 스마트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이 롤스로이스 해양사업부 인수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롤스로이스가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해양사업부에 대한 잠재적 인수후보자로 현대중공업과 노르웨이 엔지니어링회사 아케르솔루션즈, 핀란드 선박기자재회사 바르질라, 사모펀드 회사 등을 꼽았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국내도 해외도 철수 '빨간불' … '內憂外患'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점 비싼 임대료에
이달 철수 발표 가능성 커져
30년간 운영한 괌 공항면세점
법원 "입찰 무효" DFS 손들어줘



올해 취임 2년을 맞는 장선욱〈사진〉 롯데면세점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비싼 임대료 때문에 한 나라의 관문인 공항에서 면세점을 철수해야 하는 지경에 처했고 해외에서는 30년간 운영해온 면세점을 글로벌 경쟁업체에 내줄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이 이달 인천공항공사에 철수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제2여객터미널(T2) 개장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에 낼 임대료를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9월부터 T1 면세점 구역 중 4개 구역에서 향수와 화장품, 담배와 주류, 패션·잡화 등의 영업을 해왔다. T1 전체 매장 면적의 약 60%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이후 영업난에 빠지며 지난해 2분기 200억 원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롯데면세점이 2015년부터 5년간 인천공항공사에 내야 하는 임대료는 4조 원이 넘는다. 지난해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매출이 1조1209억 원으로 2016년보다 약 200억 원 줄었는데, 한해 매출에 육박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물게 된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지난해 말부터 임대료 조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롯데는 임대료 책정 방식을 최소보장액 형태가 아닌 매출 규모와 연동되는 영업요율 방식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고 인천공항공사 측은 최종적으로 30%가량 임대료를 낮춰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를 공정위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업계에서는 사업기간 5년 중 절반인 2년 6개월이 지나야 사업자가 철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계약 조건에 따라 롯데면세점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 이달 말 공식 철수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롯데면세점은 30년간 운영해온 괌 공항 면세점 사업권도 잃을 위기에 처했다. 2012년 롯데가 세계 면세점 1위 사업자인 DFS를 제치고 괌 공항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면세점 입찰 무효에 대한 DFS 측 주장이 현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2023년까지 운영권을 획득했으나 운영권을 조기에 반납하면 4~5년은 채우지 못하게 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괌 공항면세점은 최종적으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인천공항 면세점은 공사 측과 협상을 진행 중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현대상선·글로벌 선사 3社
"아시아~남미 서안 서비스" 협력

4월初부터 3개 노선으로 재편

현대상선이 글로벌 선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남미 서안 서비스'를 새롭게 재편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롭게 재편된 서비스는 현대상선을 비롯해 스위스 MSC, 독일 Hapag - Lloyd, 일본 컨테이너 3社 통합법인 ONE(Ocean Network Express) 등 4개의 글로벌 선사가 함께 운영한다. 기존의 '아시아~남미 서안 서비스'는 현대상선과 MSC, CMA-CGM, 함부르크 수드, Hapag - Lloyd, APL, CSCL 등 7개의 선사가 3개의 서비스를 운영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남미 서안 서비스'는 한국-중국-일본-대만을 거쳐 멕시코-페루-칠레-콜롬비아 등 중/남미 서안 주요 국가를 연결하는 서비스다.

이에 머스크라인도 오는 4월 초 '아시아-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남미서안'을 잇는 신규 항로 'AC5'를 개설하고 콜롬비아, 카리브해 및 브라질 빼생 지역으로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신규 서비스 제공에 나서기도 했다. 머스크라인은 콜롬비아, 파나마, 카리브해 시장 진출과 더불어 페루·칠레 시장(AC1), 멕시코·중앙아메리카(AC2) 및 라틴아메리카 서안 지역(AC3) 등 기존 AC네트워크 서비스들에 전용 직항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상선을 비롯 이번에 컨소시엄을 구성한 4개의 글로벌 선사들은 세부 운항 스케줄과 투입 선대 등을 다음달 확정 지은 후 총 3개의 노선으로 4월 초부터 서비스 할 예정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MSC, Hapag - Lloyd, ONE 등 글로벌 선사와 함께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극동-중·남미 서안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수익력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선영 기자 moon@

삼성 '빅스비'·LG '클로이' 잦은 오류에 음성인식 허점

말귀 못 알아듣는 'AI비서'

삼성전자, 빅스비 결합 무풍 에어컨 향해 말해도 "…"
인식률 97% 사투리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응답뿐
LG 직원들, 지난달 'CES'서 '묵묵부답' 클로이에 진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연결'에 이어 '지능'을 더한 가전 빅스비(Bixby)와 클로이(CLOi)를 내놨지만 잦은 오류로 체면을 구기고 있다.

빅스비는 2017년 3월29일 공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8에 탑재된 인공지능(AI) 가상 비서다. 갤럭시S8의 왼쪽 측면 아래에는 빅스비 전용 버튼이 있다. 빅스비는 텍스트와 터치는 물론 음성까지 인식한다. 사용자의 명령을 문맥으로 파악해 정보를 검색하고, 앱(응용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게 해준다. 삼성전자는 빅스비를 가전기기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연동해 AI 플랫폼으로 키워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에 따라 '2018년형 무풍에어컨'에 빅스비 기능을 추가했다.

삼성전자는 8일 기자들 앞에서 빅스비를 결합한 2018년형 무풍에어컨을 공개했다. 기존 모델과 달리 음성인식 기능을 강화해 일상적인 대화 방식으로도 에어컨을 구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관계자가 에어컨을 향해 "하이 빅스비"를 수 차례 외쳤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사투리로 "너 뭐꼬"라고 불러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응답뿐이었다. 이렇게 다소 민망한 상황이 반복된 끝에 빅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하이 빅스비, 나 추워"라고 말하자, 에어컨이 "인공지능 패턴 분석에 맞춰 희망온도를 1도 높일게요"라고 답했다.


빅스비가 탑재된 삼성전자 2018년형 무풍에어컨.

회사 측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수가 무선랜에 접속하다 보니 무선랜(WiFi)을 기반으로 빅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어야 빅스비가 가동 되는데, 시연장소가 일반적 사용 환경과는 많이 달라서 오류가 났던 것 같다"면서 "집에서 홈 와이파이를 쓰는 등 일반적 사용 환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투리 인식률은 97% 정도"라고 덧붙였다.

앞서 LG전자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바 있다. 세계 최대의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18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달 8일(현지시각),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Mandalay Bay) 호텔에서 열린 LG전자의 프레스 컨퍼런스에 등장한 로봇 클로이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전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기자 10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 차례 질문을 던졌으나 답이 없었다. 이에 데이빗 반더월(David Vanderwaal) LG전자 미국법인 마케팅총괄은 "로봇도 기분이 별로일 때가 있다", "클로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며 농담으로 상황을 무마했지만 LG전자 임직원들은 식은 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이광호 기자 khlee@

안정성 좇는데 해외 손실 '암초' 대우건설 '고래' 뱉어낸 '새우'

호반건설, 인수 포기 선언 왜

해외플랜트 건설 3300억 부실에 깜짝
기존 국내 공공 택지 사업과 너무 달라
또 다른 위험 계속 감당하느니 접기로

잇따른 논란 부담…정치권서 비난
특혜·헐값 꼬리표, 대우건설 직원 불만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 9일 만에 인수 포기를 선언하며 대우건설 M&A가 또다시 혼돈에 빠졌다. 호반건설은 인수 포기 이유로 해외 건설의 부실을 들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너무 안일한 대응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호반건설은 대우건설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호반건설 M&A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통제가 불가능한 해외사업의 우발 손실 등 최근 발생 일련의 문제들을 접하며 과연 우리 회사가 대우건설의 현재와 미래의 위험 요소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진행했고 이에 대해 아쉽지만 인수 작업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외 건설 돌발 변수=실제로 대우건설은 지난해 4분기 영업적자 1432억 원을 기록했다.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영업이익 목표인 7000억 원을 웃도는 실적이 기대됐지만 4분기 어닝쇼크와 함께 연간 이익도 4373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4분기 손실 가운데 해외 손실만 약 3300억 원으로 대부분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공사에서 발생했다. 발전소 시운전을 하는 중에 주요 기자재가 파손되면서 다시 제작하는 등 비용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1년 매출이 1조2000억 원 수준인 호반건설 입장에서 해외 현장 한 곳에서만 3000억 원이 넘는 부실이 발생한 것을 보고 두려움이 앞섰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본입찰에 단독 입찰하면서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경우 최근 실적이 부진한 해외사업 부문을 매각할 것이라는 소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오일 달러가 올라갈 것이고 특히 동남아 쪽에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핵심이고 해외사업을 계속 키워나가겠다"며 대우건설의 해외사업 매각설을 일축한 바 있다.

여기에는 호반건설 특유의 안정성 위주의 경영 스타일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호반건설은 그동안 택지개발지구의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큰 사업만 추진하며 사세를 키워왔다.

하지만 인수 과정에서 막상 이 같은 돌발 부실을 접하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해외 현장에서 추가 부실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것 역시 포기 이유로 꼽힌다.

대우건설은 현재 카타르, 오만, 인도, 나이지리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등지에서 해외사업을 진행 중이다.

◇각종 논란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 듯=여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쏟아진 특혜 매각 의혹과 헐값 매각 논란, 대우건설 노동조합 등 내부 불만 등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호반건설M&A관계자는 "지난 3개월여간의 인수 기간 정치권 연루설, 특혜설과 노동조합 등 일부 대우건설 내 매각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대우건설이라는 상징적 국가기간 산업체를 정상화하고자 진정성을 갖고 인수 절차에 임해 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러 과제들이 부담스럽던 차에 해외부실 문제까지 터지자 재빨리 포기 선언을 했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의 헐값 매각 논란은 매각 과정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인수에 3조2000억 원을 투입했는데 호반건설의 대우건설 지분 50.75%에 대한 인수 금액은 1조6000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매각 대상 지분 50.75% 중 40%만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 10.75%는 2년 뒤에 인수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풋옵션을 부여한 것을 놓고 '변칙 매각' 등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비난 의견이 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달 초 "이번 대우건설 매각은 호반건설에 특혜를 주기 위해 특정한 방향성을 두고 추진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부터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먹을 것이라는 설이 파다했다"고 주장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산업은행, 대우건설 지분 매각 과정

2016
- 10월 28일 산업은행, 이사회 열어 대우건설 주식 매각 추진 결의
- 11월 14일 대우건설 3분기 보고서에 대한 감사인 의견거절로 매각 잠정 보류

2017
- 7월 28일 산업은행, 매각 자문사 선정
- 10월 13일 산업은행, 대우건설 주식매각 공고
- 11월 13일 예비입찰에 투자자 13개사 참여
- 11월 17일 산업은행, 입찰 적격 대상자로 호반건설 등 3개사 선정

2018
- 1월 19일 본입찰에 호반건설 단독 참여
- 1월 31일 산업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 선정
- 2월 7일 매각 결렬

집값 안 오르는데 웬 규제? 민원 빗발

서울만 질주…부산 기장군 등 침체
靑게시판에 조정대상지 해제 요청도
'읍면동 규제 세분화' 법 개정 추진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지만 집값 상승에서 소외된 동네 주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격이 침체되는 지역들이 발생하면서 같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초 집값 과열 양상으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들이 침체를 겪으면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라는 지역민의 민원이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전매가 제한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 집값이 홀로 질주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도 침체를 겪는 지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0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8% 상승했다. 이 중에서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기장군은 0.5% 오히려 하락했고 남양주는 0.6%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지역은 지역 내 신도시의 집값이 오르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신도시 바깥에 사는 지역민까지 규제를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 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라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전국 조정대상지역 40곳

서울	25개 전 자치구	세종 1개
경기	7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 동탄2, 광명
부산	7개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군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기장군)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장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분화해 지정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6일 발의됐다. 대표 발의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을) 측에 따르면 남양주에서도 '다산·별내신도시'에 살지 않는 지역민들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는 통계가 시군구 단위로 작성되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을 나누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래서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서울 분양권 거래 반토막, 웃돈만 뛰었다

1월 402건…양도세 부담 증가
강남 집값 오르면서 매물 거둬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분양권 프리미엄은 올랐다.

9일 양지영 R&C 연구소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을 조사한 결과 1월 거래량은 총 40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의 718건에 비해 절반가량인 44%가 줄어든 수치다.

이는 올 1월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일괄 50%로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지난해까지는 분양권 보유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6~40%의 세금만 내면 됐다. 하지만 올 1월부터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가 강남 집값이 급등하면서 분양권 소유자들이 기대감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로 분석된다.

실제로 강남권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강남구는 지난해 12월 42건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단 3건만 거래가 되면서 지난달 대비 무려 93%가 줄어 강서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줄었다. 다음으로 서초구가 51건에서 1월에는 6건으로 88%가 줄었고 송파구 역시 같은 기간 100건에서 30건으로 70%가 감소했다.

시장에는 여전히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이 풍부한 가운데 정부가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 규제가 심화되면서 분양권과 입주 5년 이내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는 분양권 양도차익에 50%의 세율이 일괄 부과되는 등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에 나오는 분양권 매물도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이처럼 분양권 거래는 없지만 웃돈은 강세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용 59㎡ 분양권은 지난해 12월만 해도 최고 13억900만 원에 실거래가가 신고됐었지만 현재 18억 원대에 매물로 나와 있다. 한 달 사이 무려 5억 원 오른 것이다.

송파구 가락동 '송파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에 평균 12억 원가량에 거래됐지만 14억5000만 원에 분양권 매물이 나와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 전용 84㎡는 이달 19억9385만 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가 3.3㎡당 4258만 원으로 일반아파트 기준 역대 최고 분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보다 4억5000만 원 이상이 상승한 값이다.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 루체하임(3억7000만 원)'과 반포동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3억5000만 원)',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3억2000만 원)'에도 각각 3억 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공급 물량 부족에다 양도세 부담에 따른 분양권 매물 품귀현상으로 프리미엄은 더 올라가는 분위기다"면서 "수요억제책이 아니라 강남 집값의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부족 해결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알리바바, 인도 진격…아마존과 맞붙는다

현지 온라인몰·물류·결제업체
수천억원어치 持分 사들여
인도 전자상거래 2위 아마존 추격
클라우드·게임 산업도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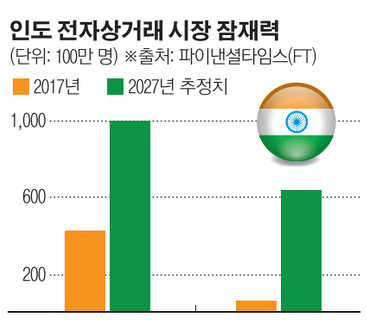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그룹홀딩이 인도에서 아마존닷컴과 정면대결을 펼친다.

알리바바는 지난해 11월 세계 최대 쇼핑 이벤트로 자리 잡은 '독신자의 날(광군제)' 행사에서 약 250억 달러(약 27조182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인도 전체 전자상거래 매출과 맞먹는 것이다.

그러나 알리바바는 인도를 해외 첫 주요 시장으로 꼽으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개했다.

알리바바는 지난주 현지 온라인 슈퍼마켓 빅바스켓 지분 2억 달러어치를 확보했다. 온라인 결제 자회사인 앤트파이낸셜은 인도 음식배달 앱 조마토(Zomato)에 동일한 금액을 투자했다.

앞서 지난달 초 알리바바는 현지 전자상거래 전문 물류업체 익스프레스비스(XpressBees)에도 3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런 움직임은 알리바바가 쇼핑몰과 결제, 배송 등을 결합해 성공한 자국의 사업모델을 인도로 이식하려는 의도라고 FT는 풀이했다. 인도 IT 사업가이자 작가인 카샤프 데오라흐는 "아마존처럼 알리바바도 인도에서 글로벌 전략을 펼치려 한다"고 말했다.

알리바바는 지난 2015년 2월 온라인 결제 스타트업 페이티엠에 투자하면서 인도시장 진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해 초 페이티엠의 온라인 소매 부문에 1억7700만 달러를 투자, 지배지분도 확보했다.

중국과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은 전혀 다르다. 인도는 인프라 정비가 덜 돼 있고 빈곤층 인구도 많다. 2016년 기준 인도의 1인당 명목소득은 1709달러로, 중국(8123달러)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인도 전체 인구 중 스마트폰을 보유한 사람 비율은 25%도 안 된다. 또 스마트폰 중 3분의 1은 데이터 플랜이 없어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다. 반면 중국은 인구 절반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시장의 잠재력을 보고 많은 업체가 뛰어들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아마존은 인도를 핵심시장으로 보고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미 그동안의 공격적 투자에 힘입어 아마존은 플립카트에 이어 인도 2위 전자상거래 업체로 부상했다.

알리바바의 지원을 등에 업고 페이티엠은 전자상거래로 영역을 확대해왔다. 다만 아직 페이티엠의 온라인 쇼핑몰 월 매출은 플립카트나 아마존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페이티엠은 전자상거래 부문을 '페이티엠몰'로 재단장했다. 상점들이 입주한 가상 쇼핑몰 성격을 띤 알리바바 모델을 채택한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해 알리바바는 경쟁사보다 더 낮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더욱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페이티엠은 아마존 등 기존 이커머스 강자들의 영향력이 제한된 중소도시에서 성장기회를 찾을 수 있다.

알리바바는 빅바스켓 투자를 통해 대도시 고소득층 고객에게도 접근하고 있다. 빅바스켓의 하리 메논 최고경영자(CEO)는 "페이티엠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엄청난 양의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알리바바가 인도에서 관심을 갖는 부문이 전자상거래만은 아니다. 알리바바는 지난달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인도 첫 데이터센터를 개설했으며 게임사업에도 진출했다. 동영상 스트리밍 진출도 고려하고 있다. 포레스터리서치의 사티쉬 미나 애널리스트는 "궁극적으로 알리바바는 인도에서 모든 사업을 갖췄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것"이라며 "그 이후 정말로 많은 돈을 인도시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브로드컴 새 인수안 퀄컴이사회 또 거부 "131조원도 낮은 편"

다음달 주총서 최종 결정
이사회 선임도 표결 예정

퀄컴 이사회가 인수액을 1200억 달러(약 130조9200억 원)로 높인 브로드컴의 새로운 인수안을 거부했다.

8일(현지시간) 퀄컴 이사회가 브로드컴의 인수 제안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고 CNBC를 비롯한 외신이 보도했다.

폴 제이콥스 퀄컴 회장은 혹 탄 브로드컴 최고경영자(CEO)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사회는 개정된 제안이 퀄컴을 과소평가했으며 이사회가 거래 실패의 위험을 고려해 요구한 확고한 공약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면서 "만장일치로 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제이콥스 회장은 "퀄컴 이사회는 브로드컴과의 논의를 통해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모든 옵션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브로드컴의 제안은 퀄컴의 기업 전망을 고려했을 때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퀄컴 측은 브로드컴에 면담을 제안했다. 브로드컴은 1200억 달러 제안에 대해 "최고의, 최종적 제안"이라 밝힌 바 있다.

5일 브로드컴은 퀄컴에 대한 인수액을 105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로 높여 새 인수안을 제시했다.

퀄컴은 앞선 인수안에 대해 인수액이 낮다며 거부했다. 이에 브로드컴이 주당 70달러 계약을 주당 80~82달러(현금지급분 60달러)로 수정했다.

브로드컴은 인수·합병(M&A) 이반독점 규제에 걸릴 위험을 고려해 인수안에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을 포함했으며 1년 내 종결되지 않으면 퀄컴 투자자들에게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사회의 거부로 다음달 6일 퀄컴 주주총회를 앞두고 브로드컴이 던진 승부수가 여전히 퀄컴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음을 확인한 셈이다.

이날 이사회가 새 인수안을 거부했으나 최종 결정은 퀄컴 주주들의 손에 달려있다. 퀄컴 주주들은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브로드컴의 인수안을 수용할지와 이사회 선임안을 표결에 부친다.

세계 4위 반도체 업체인 브로드컴과 3위 퀄컴의 합병이 성사되면 IT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M&A로 기록될 전망이다. 삼성과 인텔에 이은 세계 3위 반도체 제조사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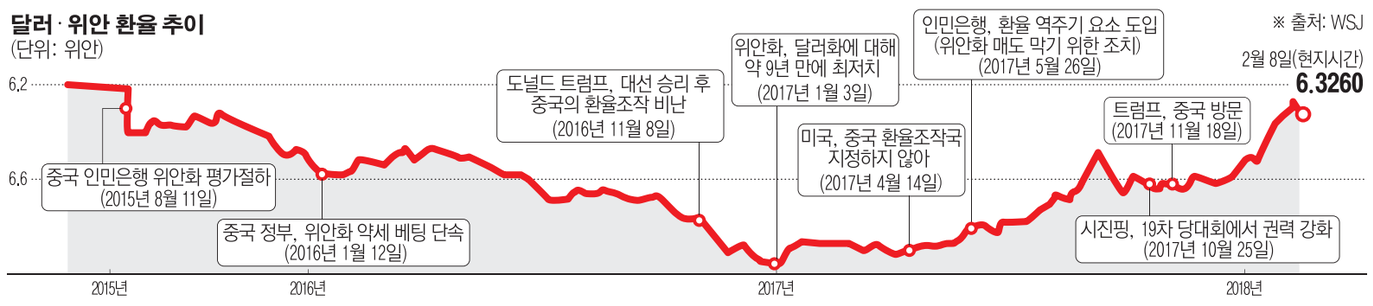
이주혜 기자 winjh@

오늘은 평창 올림픽, 내일은 리우 카니발 개막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가 8일(현지시간) 남미 최대 규모 삼바축제인 리우 카니발 개막을 하루 앞두고 축제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리우 외곽 한 병원 앞 거리에서 환자들이 분장을 하고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 리우데자이네이루/AP연합뉴스

위안화 3년 만에 하루 최대폭 하락, 주범은



8일 달러·위안 환율 장중 1.5% 올라
이번엔 정부 아닌 시장이 약세 주도
1월 무역 흑자 줄어 위안화 매도 탓
세이프가드 등 美 보호무역 한몫

중국 위안화 가치가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정부가 통화 가치를 결정했던 이전과 달리 시장이 위안화 하락세를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위안화 가치가 2015년 8월 인민은행의 평가절하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날 상하이 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위안 환율은 전날보다 1% 상승(위안화 가치 하락)한 6.3260위안(약 1088.89원)을 기록했다. 금융정보업체 윈드인포에 따르면 장 초반 하락폭은 1.5%에 이르기도 했다. 중국 인민은행 외환교역센터는 이날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날보다 0.1% 올린 6.2822위안으로 책정했다.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폭은 기준 환율의 2% 내외에서 가능하다.

홍콩 역외시장에서 미국 달러화당 위안화 가치는 0.4% 하락한 6.3480위안을 기록했다.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가치는 역내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월 예상치 못한 평가절하과 달리 이날 위안화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2015년 8월 11일 달러·위안 환율을 6.2298위안으로 1.86% 평가절하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수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위안화 가치를 하락시켰다.

그러나 이날 시장에서는 중국의 1월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발표되자 위안화 매도세가 나타났다. 중국 해관총서는 1월 무역수지 흑자가 203억4000만 달러(약 22조2824억 원)로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비해서는 62.8% 급감했다. 지난달에 수출보다 수입이 급증하면서 흑자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늘었으나 수입은 36.9% 증가했다.

켄 청 미주호은행 외환전략분석가는 "이날 하락은 중국의 예상치 못한 무역 흑자 감소로 인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시장의 예상이 일방향적이었기 때문에 부정적 데이터가 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추오 하오 싱가포르 코메르츠 은행 애널리스트는 "무역 데이터에 대한 충격과 주가 하락으로 인한 압박이 오늘 최고조에 이르렀다"면서 "그 결과 위안화가 강세에서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은 앞으로도 몇 주간 계속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이 위안화 가치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저렴한 아시아 수출품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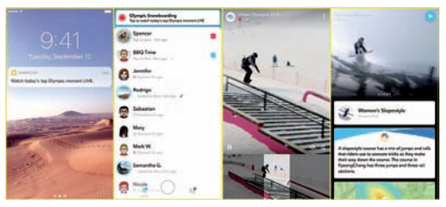
이날 급락에도 위안화는 여전히 강세다. 지난 1년 동안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8% 이상 급등했다. WSJ는 다수의 펀드매니저들이 달러화 약세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올해 강한 위안화에 베팅했다고 전했다. 달러화는 이날 다른 통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나타냈다. 일본 엔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0.3%, 유로화는 0.2% 각각 하락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테크 인사이트

올림픽 하이라이트 SNS서 실시간중계

스냅챗, 올림픽 주요 장면 스트리밍



앱 스냅챗의 평창올림픽 생중계 '라이브'.

스포츠 경기 중계를 TV로만 보던 시대는 지났다. 평창 동계올림픽부터는 경기 하이라이트 순간에 알람이 울리면 채팅앱으로 주요 장면을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다.

미국 소셜미디어(SNS) 기업 스냅이 모바일 메신저 앱 스냅챗을 통해 평창올림픽 경기 일부를 생중계한다고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평창올림픽 주관 방송사 NBC가 중계하는 경기의 주요 부분을 스트리밍하는 형식이다. 이를 위해 스냅챗에 '라이브'라는 생방송 서비스가 새로 도입됐다. 이전에도 스냅챗에 동영상 업로드는 가능했으나 스트리밍 기능이 추가된 것은 처음이다.

스냅은 스냅챗의 디스커버 섹션에서 스트리밍 영상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전체를 중계하는 것은 아니다. 피겨스케이팅이나 스키 등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만 보여준다. 각 라이브 영상은 2~6분이며 스트리밍이 끝나면 앱에서 삭제된다. NBC의 중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스냅은 중계가 시작되면 사용자가 푸시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벤 슈웨린 스냅 파트너십 부문 부사장은 "스포츠 중계를 보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TV"라면서도 "스냅챗이 가장 중요한 순간을 보여주면 보완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냅챗의 평창올림픽 라이브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최근 방송사들은 시청자 감소로 광고를 잃고 있다. 젊은 시청자들이 TV보다 스마트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올림픽은 이들이 실시간 TV 중계에 높은 관심을 가지는 흔치 않은 기회이다. 매기 스니위크 NBC유니버셜 엔터프라이즈 사장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당시 스냅챗의 NBC 영상에 관심을 가진 3500만 명 중 90%가 35세 미만이었다"고 말했다. NBC에 스냅과의 제휴는 광고주가 원하는 젊은 시청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이다.

스냅은 라이브 스트리밍이 길이가 짧아 광고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 외 올림픽 관련 콘텐츠에는 광고가 포함되며 스냅과 NBC가 수익을 나눈다. NBC는 미국 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단편 영상을 스냅에 제공하기로 했다. NBC 대변인은 지금까지 20개 이상의 브랜드에 광고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스냅은 앞으로도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BC는 지난해 스냅의 기업공개(IPO)에 참여해 5억 달러(약 5439억5000만 원)를 투자했다. 계열사가 아닌 곳에는 실시간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 NBC가 스냅만은 예외로 한 이유다.

이주혜 기자 winjh@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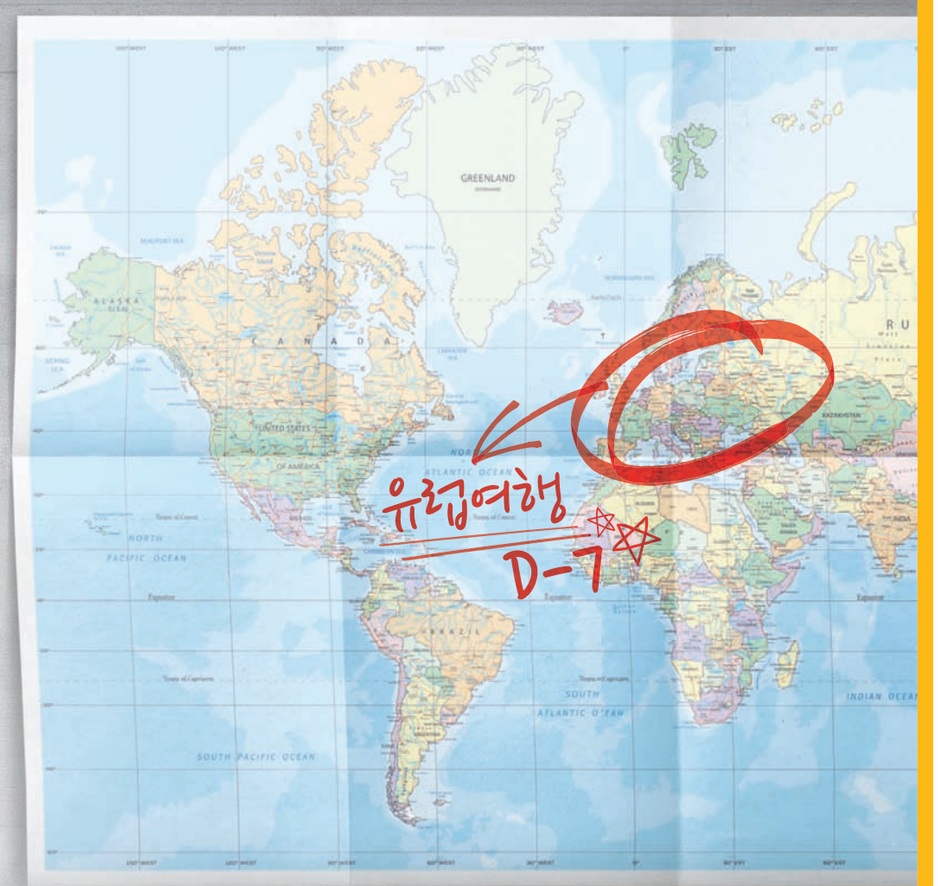
KB금융그룹

여행준비로 바쁠 때,

환전만큼은 편하게 배달받자!

KB-POST 외화배달 서비스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외화 배달을 해주고
추가로 환전 우대 혜택까지!
이젠, 바쁘게 환전하지 말고 **KB 외화배달** 받으세요





Click 한번으로 환전한 외화를 집(직장)에서 받자!

신청방법: 인터넷(KB스타)뱅킹, 리브(Liiv), 스마트 상담부(☎1800-9990)에서 환전신청
* 배송 지역 : 서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8년 하반기 전국 확대 예정)

EVENT 1 Click만 해도, 누구나 **배달수수료 전액면제 혜택!**

EVENT 2 Hot하게~ 환율우대 최대 50% 혜택까지!
* 이벤트 기간 內 신청금액에 따라 환율우대 최대 50% 제공

■ **이벤트 기간**: 2018. 1. 8(월) ~ 2. 28(수)

EVENT 3 추첨을 통한 모바일 커피 상품권 증정!

구분	내용	대상
경품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 상품권 5천원권	200명
경품북	면세점(롯데, 갤러리아, 두산, 시티), 공항철도, 휴대용 Wi-Fi할인권	모든 고객

※본 이벤트는 KB국민은행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이벤트 경품은 사정상 동일 금액대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VENT 3에 대한 추첨은 난수 추첨 방식으로 별도 참여 없이 자동응모 처리되며, 1인당 1회만 응모됩니다.(EVENT 간 중복 적용 가능)
※모바일 커피 상품권은 별도 통보 없이 2018년 3월 19일(월)에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발송되며, 수탁업체(㈜쿠프마케팅)에 고객님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품 발송업무를 위탁합니다.
[제공범위 : 휴대폰 번호, 대상업무 : 이벤트 경품 발송]
※기타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65호(2018.01.31)

KB 국민은행

여기는 평창! 화제의 인물 첫 승전고 울린 이기정·장혜지 (컬링)



8일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믹스더블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이기정과 장혜지가 스위핑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리더십 강한 이기정·판단력 좋은 장혜지
最年少 출전팀 "젊음·패기, 우리의 무기"

쌍둥이 형과 함께 컬링 태극마크
이기정, 작년 세계주니어선수권 1위
1997년生 장혜지, 高 2학년때 입문
2016년 동계체전 금메달 따며 頭角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전날인 8일 컬링 믹스더블 팀의 장혜지(21·경상북도체육회)와 이기정(23·경상북도체육회)이 대한민국의 첫 승을 신고했다.

두 선수는 8일 오전 8시 5분 강원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핀란드와의 예선 1차전 경기에서 9대 4로 승리했다. 경기 직후 이들은 "준비한 것의 70%만 보여 드린 것 같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열린 중국과의 두 번째 경기에서는 연장 접전 끝에 7대 8로 아쉽게 패했다. 장혜지·이기정 팀은 9일 오전 8시 35분 노르웨이와, 오후 1시 35분에 미국과 각각 3·4차전을 벌인다.

컬링 믹스더블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처음 선보이는 혼합 복식 경기로 기존의 종목과 달리 두 명이 한 팀으로 경기를 치른다. 일반적으로 남자 4인조 또는 여자 4인조로 경기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믹스더블은 대회 시작 전부터 관심을 받았다. 장혜지·이기정 팀은 이번에 출전한 믹스더블 팀 중 가장 나이가 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에도 이기정은 "우리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며 "젊음과 패기가 우리의 장점"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실제로 장혜지·이기정 팀은 지난해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 믹스더블 컬링 선수권에서 6위를 차지하며 메달권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기정은 쌍둥이 형 이기복과 함께 이번 올림픽에 출전했다. 남자 4인조에 출전하는 이기복과 함께 지난해 세계 주니어 컬링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이기정은 리더십이 강한 성격과 경기를 직접 풀어나가야 하는 믹스더블의 특징이 잘 맞아 출전 종목을 바꾸었다.

주니어 선수권 당시도 스킵은 이기정이었다. 일반적으로 컬링에서 스킵 역할을 하는 선수가 주장을 맡게 되는데, 스킵은 경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읽고 선수들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가 하면 장혜지는 1997년생으로 이번 믹스더블 종목 최연소 선수다. 선수촌 입성 당시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귀여운 소녀의 모습을 보였던 장혜지도 2016년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선수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제안으로 컬링을 시작한 장혜지는 연차는 적지만 경기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핀란드와의 1차전에서 경기 중간에 이기정에게 피드백을 하며 게임을 풀어 나갔다. 경험이 중요한 종목 특성상 한때 어리다는 것이 콤플렉스였다던 장혜지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성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평창올림픽에서 이기정의 리더십과 장혜지의 판단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대영 기자 kodae0@

한국 선수 주요 경기일정(10일)

컬링
- 오전 9:05 믹스 더블(혼성2인조) 예선 5차: OAR※전 이기정, 장혜지
- ※ OAR: 러시아 출신 올림픽선수
- 오후 8:05 예선 6차: 스위스전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 오후 7:00 남자 1,500m 예선 · 결선 서이라, 임효준, 황대헌
- 오후 7:44 여자 500m 예선 심석희, 최민정, 김아랑
- 오후 8:52 여자 3,000m 계주 예선 심석희, 최민정, 김아랑, 이유빈, 김예진

아이스 하키
- 오후 9:10 여자 조별리그 1차 스위스전 남북한 단일팀

스키점프
- 오후 9:35 남자 노멀힐 개인전 본선 · 결선 최서우

아이스댄스 우아한 몸짓



평창 동계올림픽 피겨 아이스댄스 종목에 출전하는 민유리와 겜린 조가 8일 오전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삼지연관현악단 축하공연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이 8일 오후 강원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기원 특별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날 공연에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별', '당신은 모르실 거야', '사랑의 미로', '다함께 차차차', 서인석의 '홀로 아리랑'과 '오페라의 유령' 등 서양 교향곡이 포함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실전 같은 훈련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강원 평창군 휘닉스 평창에서 열린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모글에 출전한 아드레이 로비차드(캐나다)가 슬로프를 내려오며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강원 평창군 휘닉스 평창에서 열린 스노보드 슬로프 스타일에 출전한 선수가 점프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애슬론 여왕' 독일의 로리가 8일 오후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 슈팅 레인지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달자의 **햇살과 바람** 시인

겨울 문학여행

오랜만에 나들이를 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기념 특별전으로 '겨울 문학여행'(1.29~3.18)을 전시하고 있다. 제1회 동계 올림픽 개최국인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북미, 다시 동아시아의 중국과 일본을 거쳐 한국에 이르는 여정을 따라가며 겨울 문학 속에 새겨진 모든 이야기를 담아 전시하고 있는 것이다. 꼭 보고 싶은 전시였다. 모두 10개의 언어권과 13개 국가의 대표적 작품을 아우르고 있어 올림픽 기간 중 모든 세계인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여행지라고 할 수 있다.

겨울은 작가에게 무엇일까? 세계의 모든 문학은 사실 겨울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다시 묻는다. 겨울은 과연 작가에게 무엇인가? 이어령 선생은 겨울은 역설적으로 가장 따뜻한 계절이라고 말했다.



겨울을 통과하지 않는 봄이 있던가. 겨울은 인간이 넘어서야 할 결의와 의지라고 나는 생각한다. 삶이 그렇지 않던가. 편안하게 보이는 삶 속에서도 자기만의 겨울을 감당하면서 한바탕 싸움으로 이어지는 삶이 아니던가. 혹독한 시련, 고통, 상처, 질병, 비극, 문명이 만들어 낸 인간의 한계, 전쟁, 그리고 핵의 위협마저도 넘어서야 할 인간의 의지를 겨울로 표현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겨울이 없었다면 문학이 존재했을까? 어리석은 질문을 하며 전시를 둘러보았다. 이번 국립한글박물관이 주최한 '겨울 문학여행'은 바로 세계에 드러나고 있는 인간의 불합리한 비평화를 넘어서야 한다는 개념으로 다시 읽는 세계의 겨울 문학을 선보이는 것이다. 이 전시에는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작품들도 있다.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53편의 겨울 시(詩)도 눈길을 끈다. 각 나라 언어로 된 도서와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비치하여 비교하면서 읽어 볼 수 있게 하여 편리함까지 준다.

특히 각 나라 대사관이 추천한 도서들이 눈길을 끄는데 독일, 중국, 스위스, 노르웨이, 캐나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의 7개 대사관의 협조로 추천받은 겨울 문학의 진수를 볼 수 있다. 물론 한국 작품들도 익숙하게 만난다. 백석의 나타샤를, 이청준의 눈길을, 김광균의 설야(雪夜)를, 김승옥의 1964년 겨울을, 그리고 황진이의 동짓달을 만날 수 있다.

평창의 작가인 이효석의 겨울도 눈이 시리게 볼 수 있는 이 전시는 사실 국내에서도 겨울 문학만 골라 개최한 첫 기획이다. 이효석의 보기 드문 작품 '성부수(1935년)'와 '벽공무한(碧空無限·1941년)'도 기다리고 있다.

아동물들도 재미를 얻을 수 있게 전시돼 있어 어린이를 위한 가족 나들이도 겨울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환상적인 겨울 문학교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박목월 선생은 2월이면 베개 밑으로 봄이 흐른다고 했다. 겨울의 끝은 봄이다. 겨울을 이악물고 견디는 것은 스스로 자기 안에서 봄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작가들은 그래서 겨울 안에서 모든 작품을 구상했는지 모른다. '하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라는 올림픽 취지에도 잘 맞는 하나 된 겨울 문학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는 드물다. 서점과 또 다르게 작품을 위한 미디어를 이용한 화려함이 작품 안으로 불쑥 뛰어들게 만들어 공감과 황홀감을 더한다. 작은 나들이에 비해 기쁨이 크다. 이 전시의 끝은 역시 봄이다. 봄에 닿기 위해 이 겨울 전시를 한번쯤 통과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싶다. 세계 겨울 문학여행이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대방로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관의 독립, 대법원을 주시한다

서로 다른 음색을 내는 악기들이 각기 다른 성부(聲部)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는 화음(和音)이 중요하다. 정확한 화음을 내려면 음이 맞아야 한다.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트럼펫과 트럼본이 각기 자신의 음이 맞으니 자기를 따르라고 한다면, 오케스트라는 화음은커녕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시작하기 전 오보에의 에이(A) 음에 모든 악기가 음을 맞춘다.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우리 사회를 오케스트라에 비유한다면 사법부는 오보에에 해당한다.

지난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015년 2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법원행정처로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당시 청와대가 원전 원장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추가조사위원회의 발표 직후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은 전원 공동 명의로 청와대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외부 기관의 영향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6명의 대법관이 공동 명의 입장 발표에 참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청와대가 선거의 공정성과 당선의 정당성을 따지는 재판에 개입을 시도했거나 최소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재판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발표로 성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지 의문이다.

권력분립을 흔드는 행위는 형법의 논의를 빌리자면, 침해범(侵害犯)이 아니라 위험범(危險犯)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헌법이 규정한 법관의 독립은 권력의 개입으로 실제 재판의 절차나 결과가 왜곡돼야만 해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위험만 있어도 해쳐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례없는 대법관들의 공동 입장 발표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져버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 권력이 사법부에 압박이든 간청이든 그 어떤 접촉이라도 했다면 삼권분립 원칙을 크게 훼손한 것이다. 권력분립과 선거제도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여기에는 보수와 진보가 나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소란스러운 것이다. 소란스럽지 않다면 독재국가이거나 전체주의일 것이다.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국가에서도 싸움은 늘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있다. 갈등의 해소 방법과 절차가 합리적이라면, 즉 건강한 사법이 존재한다면, 어떤 소란과 혼란이 있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런 갈등은 발전을 위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가 내부에서, 그리고 외부에 의해 흔들리는 것은 엄중한 사태다.

지난 2년간 검찰과 특검에 쏟아진 국민의 눈과 귀는 이제 법원을 향해 있고, 올 하반기에는 그중에서도 대법원으로 쏠릴 것이다. 2016년 하반기에서 2017년 상반기까지 국민들은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을 줄줄 외울 정도였는데, 조만간 대법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입법과 행정이 망하는 것은 사법이 망하는 것에 비하면 조금 망한 것이다. 구부러진 잣대, 작은 것은 잘 재지만 큰 것 앞에 서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저울이 있는 한 그 사회에 희망은 없다. 첼로가 음을 틀리거나 바순이 혼자 큰 소리를 내더라도 지휘자가 지휘 과정에서 지적하여 고쳐주면 연주가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오보에가 제 음을 내지 못하면, 오케스트라와 연주는 망가지게 된다. 작지만 한자리에서 에이 음을 똑바로 내는 오보에만 있다면 절망할 필요는 없다.

한 컷



寒波에도… 설 선물 택배, 바쁜 손놀림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택배 물류창고엔 선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온다. 물류센터 직원들은 다시 들이닥친 북극 한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게 택배를 분류한다. 이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는 편안하게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 명절 선물을 받을 때, 택배 기사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 "고맙습니다.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라고. 이동근 기자 foto@

온라인 e모저모

北 김여정, 평창 개막식 참석 "뭔가 절박한 게 있는 모양"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북 권력서열 2위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남한다. 북한 김일성 일가인 '백두혈통'의 방남이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여정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으로 최휘 국가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9일 방남해 사흘간 일정을 소화한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친혈육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영희 사이에 태어났다. 김정은의 총애를 받아 승승장구한 김여정은 현재 북한 2인자로 알려져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 대표단의 방남은 올림픽 축하와 함께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려는 북측의 의지"라고 말했다. 또 "김여정은 김정은의 여동생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이번 방남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여정의 방남은 미국을 겨냥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다"며 "북한이 '김정은의 이방카' 김여정을 파견함으로써 대북 제재 등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네티즌은 '김여정 방남' 소식에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네이버 아이디 'apdl****'는 "김여정의 방남이라니, 믿기지 않는다"며 놀라움을 드러냈다. 네이버 아이디 'free****'는 "비핵화 안 할 거면 안 오는 게 맞다"며 핵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kbs1****'는 "김여정을 보내는 건 절박하다는 뜻 아닌가"라며 북한의 의도에 주목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이슈&인물

"암호화폐는 稀貴材…그걸 不法이라고 접근하면 곤란"

〈희귀재〉

자본시장 감독 그리고 가상화폐

조두영

변호사·前 금감원 부원장보

狂的 투기 현상 잘못이지만
희귀재를 불법 취급한다면
先物·아이템 거래도 마찬가지
융통성 있게 보완할 방법을

정식화폐 인정하고 싶지않아
금융당국이 무시한 측면도
제도화해서 관리 감독
미리 손썼으면 이런 난리는…

고공행진을 펼치던 증시가 최근 조정을 겪으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대세적인 상승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런 급등락 장세에는 작전세력들도 기승을 부리는 법. 이에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한국거래소, 검찰 등 사정기관 역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얼마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도입한 시장감시 시스템을 선보이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로 임기를 마친 조두영(58) 변호사를 만나 자본시장 활성화와 사정기관의 역할에 대해 물었다. 그는 검찰에서 20년, 금융감독원에서 7년을 근무한 금융범죄 관련 베테랑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만난 조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저해 요인이 사정기관의 강력한 단속이라는 말도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깨끗한 시장이 선진시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우리 증시가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제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기 위한 '보다 투명한 거래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감독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깨끗한시장'이 자본시장 발전의 출발

- 검찰에서 20년, 금융감독원에서 7년간 근무한 이력에 눈길이 간다

"2007년 부장검사로 퇴직한 뒤 변호사로 잠시 일하다가 2011년 세칭 '저축은행 사태'가 터져 금감원이 크게 비난을 받던 때가 있었다. 그 당시 자정의 계기로 삼자는 의미에서 법조인 출신을 공개 모집했고, 이를 기회로 2011년부터 금감원에서 일하게 됐다. 2년 정도만 일할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7년이나 근무를 하게 됐다. 검찰 재직 당시 금융조사부에서 증권범죄 등을 주로 수사했는데, 이를 살려 금감원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분야를 담당했다."

- 금융·증권 범죄 분야를 오래 맡은 만큼, 특이한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다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없다. 다만 증권범죄와 관련한 트렌드는 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시세 조정이 많았다. 주로 홈트레이딩을 이용한 온라인 주식거래 시세 조정이다. 이후 2010년을 넘어서부터는 사기적인 부정거래가 주를 이뤘다. 주로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내부자거래가 많아졌다. 내부자거래는 발각은 잘 되더라도 혐의 입증이 어려워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제일 확실하게 돈을 벌 방법이라는 인식이 많아 내부자거래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랜만에 증시가 활황장세를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금감원 등 사정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듯하다. 하지만 사정기관의 과도한 조사가 시장 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금감원 조사가 들어가면 해당 종목과 관련된 산업 분야가 타격을 받는 것은 맞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증권시장 자체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 사정당국의 조사라는 것은 시장을 해치기도, 또 살리기도 하는 양날의 검과 같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조건을 까다롭게 정해 조사를 진행한다. 우리 증권시장이 한 단계 도약한 것은 맞다. 하지만 아직 선진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금감원 등 사정기관의 조사가 위축되어선 안 된다고 본다. 결국, 깨끗한 시장이 한 단계 성숙한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불공정거래 조사 제도, 큰 문제는 없어

- 금감원 부원장보로 근무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불공정 거래에 관한 제도나 법률 체계의 미비점은 없나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는 과거 '증권감독원' 시절부터 30년 이상 유지·발전돼 온 기능이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선진국들의 제도 등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잘 짜여 있다. 다만,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1호 지시사항으로 증권범죄 척결을 강조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조사단이 설치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자본시장조사라는 금감원 조사국과 같은 기능을 가진 조직을 금융위에 둔다는 것은 업무와 조직의 중복뿐만 아니라, 금융위의 주된 업무인 금융정책과도 다소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전체적으로 무난하지만, 하위법령에 권한이나 요건을 위임한 조항들이 많고, 영미법을 그대로 번역해 일부 조악한 조문들도 있다. 형사벌로 의율할 것을 불필요하게 행정벌로 규제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하는 조항들도 있어서 개정이 일부 필요한 게 사실이다."



조두영 변호사는 최근 일어난 암호화폐 광풍에 대해, 금융당국의 개입이 너무 늦었다고 언급했다.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언급됐을 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면 지금과 같은 부작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동근 기자 foto@

- 비트코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광적으로 투기화된 현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금융당국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다만, '화폐'라는 단어에 집착해 애써 외면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희귀재'라는 점을 간과해 버렸다고 본다. 희귀재를 불법으로 취급한다면 선물시장이라든가 인터넷게임 아이템 거래소도 불법이나 다름없다는 것인데, 이런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차라리 암호화폐가 비실명으로 거래되거나 아무런 제한 없이 국외 거래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규를 마련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가 제한된 공매도나 코넥스시장, 회사채시장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쉽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암호화폐로 쏠리는 자금이 줄어들어 현재의 광적인 투기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신기술·신금융, 당국이 선제대응 해야

- 다시 말해 금융감독원의 개입이 너무 늦었다는 것인가

"맞다. 금융위를 비롯한 관련 당국이 다소 무시한 측면이 있다. 정식 화폐로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 무시해 버린 경우이다. 신경은 쓰이는데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암호화폐를 방치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제도화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했던 것이 맞다.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재작년 국정감사 때부터다. 당시에 바로 신경을 쓰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으면 지금과 같은 난리는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신기술과 금융이 결합한 여러 형태의 신(新)금융이 몰려올 것이다. 금융위나 금감원 등 당국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만 최근 암호화폐와 같은 투기적인 병폐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청렴·신뢰 생명…잘못했으면 처벌 당연

-화제를 바꿔 보자. 사정 역할을 하는 감독당국은 청렴과 신뢰가 생명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인사비리로 구속되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렀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나

"법조인의 입장에서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건 중 주식투자나 음주운전 등 명백한 위법사항은 할 말이 없지만, 채용비리로 지적된 일부 사건들은 냉정히 볼 때는 단순한 내부인사 규정 미비나 업무 미숙에 불과한 사건들도 있고, 일반적인 채용비리 사건에서 보이는 금품수수 등은 전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과도하게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물론 수사와 재판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앞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만으로 천하의 몹쓸 집단으로 금감원이 매도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 장기간 공직생활을 하다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됐다. 향후 운영 계획은

"우리나라 검사 중에 금감원에 재직한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금감원 국장 및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실무부터 감독 업무까지 모두 섭렵해 본 사람은 전혀 없는 만큼, 그런 점이 차별화 요소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남들과 다른 경력으로 인해 자본시장을 보는 시각이 실무와 괴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굳이 말하자면, 법조계의 법리해석과 양정(量定)에만 국한하지 않고, 자본시장의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실무경험을 갖춘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변호사 업무가 과거에는 개별 사건에 대한 송무적인 해결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보다는 그간의 경력을 활용해 자본시장과 관련된 위법, 위규사항에 대한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둘 생각이다. 의뢰인이나 고문 회사들을 자주 접촉해 금융실무적이면서도 예방 법률적인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성시종 기자 ssj@

검사 시작, 변호사 거쳐 금감원에

조두영 변호사는 서울 배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 사법연수원을 제17기로 졸업한 이후 같은 해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첫 발령을 받았다. 2002년 부장검사로 승진한 이후 대검 중수부 수사과장을 지냈고, 2007년 퇴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2011년 저축은행 사건 당시 금융감독원으로 입사, 2015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지내다 2017년 말 퇴직했다. 저서로는 '소송물론', '입증책임론', '식품범죄연구' 등이 있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길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정치경제부	(02)799-2663	정책사회부	(02)799-2612
기업금융부	(02)799-2665	산업1부	(02)799-2648	산업2부	(02)799-2641
자본시장부	(02)799-2664	국제경제부	(02)799-2643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사진팀	(02)799-2646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로봇, 인공지능 연결땐 산업 무궁무진"

無人 로봇카페 '비트'만든 지성원 달콤커피 대표

비트, 주문·결제 앱 하나로
시행착오 끝에 프로그램 설계
고객 플랫폼에 모아 가치 창출
로봇사업 핵심은 효율적 육성



커피사업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 공대생, 컴퓨터공학 엔지니어링 출신의 지성원〈사진〉 대표는 달콤커피 최고경영자(CEO)로 부임한 이후 창의적인 기업, 고객이 만족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실이 로봇카페 '비트'로 나타났다.

비트는 주문부터 결제까지 앱 하나로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한 무인 스마트 로봇카페다. 소비자가 앱과 키오스크를 통해 커피를 주문하고 결제하면,비트가 커피를 제조하고 소비자가 완성된 음료를 픽업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이동 중에 음료를 미리 주문한 뒤 기다리지 않고 제조된 음료를 바로 픽업할 수 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인간적인 실수가 아닌 프로그램 오류나 기계적 결함이었다. 로봇은 아주 작은 오차에도 정상작동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정밀한 설계가 필수였다.

지 대표는 "사람의 경우 실수가 있으면 스스로 고치거나 교육 또는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나아지려 노력하지만, 아직 로봇은 프로그램을 스스로 수정할 수 없어서 반드시 엔지니어의 손이 필요하다" 며 "지속적인 시행착오와 테스트를 통해 비트가 최상의 조건으로 최고의 음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설계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사실 비트의 시작은 4차 산업의 흐름이고 로봇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고민에서 시작됐다. 달콤커피가 200여 개의 매장을 넘어섰고, 매월 100만 명의 오프라인 고객들이 방문하는 브랜드로 성장하면서, 지 대표는 이 고객들을 온라인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플랫폼의 갈증을 느끼게 되었다. 이 고민의 시작이 바로 비트로 이어졌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라는 콘텐츠의 1%만 비트가 점유하더라도, 월 유료고객 100만 명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하드웨어를 파는 비즈니스가 아닌, 고객의 경험과 가치를 플랫폼으로 모아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에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비트는 올해 1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입점하며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다. 글로벌 관광객을 비롯한 공항 근무자 등의 주문으로 각각 매일 400여 잔 이상의 음료를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할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엔지니어 출신의 지 대표가 생각하는 4차 산업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 그는 "로봇카페, 로봇사업의 핵심은 효율적인 사업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로봇카페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편의점, 무인쇼핑몰 등 그 효율성과 편의성에 따라 이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특히, 로봇이 인공지능과 연결되면서 산업은 더욱 다각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21C 뮤지션' 피아니스트 지용

워너클래식 첫 피아노 앨범 내

"바흐가 세상을 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실함이 담긴 골드베르크를 통해 평화를 전하고 싶어요."

'21세기형 클래식 뮤지션'이라 불리는 피아니스트 지용(27·사진)이 지난해 11월 워너클래식과 레코딩 계약을 맺고 2일 데뷔 앨범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전 세계 동시 발매했다. 8일 서울 광화문 문호아트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용은 바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지용은 백건우, 임동혁, 임현정에 이어 워너클래식이 선택한 네 번째 한국인 피아니스트다.

그는 특히 2016년 2월 제59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방영된 구글광고에서 베토벤 '월광소나타 3악장'을 치며 주목받았다. 이후 여러 에이전트, 매니지먼트에서 러브콜을 받은 지용은 결국 워너클래식과 음반계약을 맺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데뷔 앨범에 담은 데 대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라며 "자신만의 바흐를 담는 데 집중했다. 몇백 년간 동굴 속에 갇힌 듯한 바흐 연주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리사이틀 '아이 앰 낫 더 세임(I AM NOT THE SAME)'을 열고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기정아 기자 jjonga1006@

구본준 LG부회장 이공계 석·박사 과정 370명 초청 콘퍼런스

"R&D 인재 꿈 펼치는 데 많은 기회 제공"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LG 테크노 콘퍼런스'에서 구본준 LG 부회장(왼쪽 첫번째)이 석박사 인재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LG

LG가 7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내 이공계 석·박사 과정 인재 370여 명을 대상으로 'LG 테크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된 'LG 테크노 콘퍼런스'는 우수 R&D 인력 확보를 위해 LG 최고경영진이 직접 인재들에게 회사의 기술혁신 현황과 트렌드, 미래 성장사업 등을 설명하는 자리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하우시스, LG유플러스, LG CNS 등 7개사 CEO와 CTO(최고기술책임자) 등 80여 명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구본준 LG 부회장은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다"면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 융복합의 빠른 진화는 앞으로 여러분과 같은 R&D 인재들이 꿈을 펼치는 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수준의 융복합 R&D 단지인 LG사이언스파크는 최고의 인재들이 마음껏 연구하며 창의를 발휘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LG와 함께 고객의 삶을 바꾸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주인공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hlee@

박정호 SKT 사장, 마윈 알리바바 회장 만났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마윈(馬雲) 회장과 만나 '뉴 ICT' 산업의 청사진을 논의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5G·AI 논의… 기술 협력 검토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마윈(馬雲) 회장과 만나 '뉴 ICT' 산업의 청사진을 논의했다

SK텔레콤은 8일 을지로 본사에서 박 사장과 마윈 회장이 만나 인공지능(AI)·5G 등 차세대 ICT 산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차세대 미디어·콘텐츠 등의 미래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사업·미래 기술 협력을 검토할 방침이다. 양사는 통신, 미디어, 콘텐츠, 커머스 등 다양한 ICT 분야에서 각국 대표기업으로 활약하고 있는 만큼 협력이 추진되면 종전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K텔레콤과 알리바바그룹은 대표급 회의를 조만간 다시 추진키로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마윈 회장이 우리가 그린 ICT 청사진을 전해 듣고 흔쾌히 초청에 응했다"며 "양사가 뉴 ICT와 4차 산업혁명 생태계 확장을 선도하고 양국 협력의 가교가 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두다 폴란드 대통령 서울시 명예시민 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차 방한한 안제이 두다〈사진〉 폴란드 대통령이 서울시 명예시민이 됐다. 서울시는 두다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1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 중인 두다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폴란드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 그는 2015년 역대 최연소인 43세로 폴란드 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원순 시장은 두다 대통령을 만나 폴란드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고, 서울시의 자매도시인 바르샤바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강동구 암사재활원에 위문금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8일 서울 강동구 암사재활원을 방문해 선혜경 원장에게 위문금을 전달했다. 암사재활원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치료와 교육을 함께하는 시설이다. 이날 방문에는 민병진 금감원 부원장보,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임상현 기업은행 전무이사, 백인균 산업은행 부행장, 김준기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등 유관기관도 동참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설 명절을 앞둔 8일 유관기관 임원들과 서울 강동구 사회복지시설 암사재활원을 방문, 선혜경 원장에게 위문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포스텍 명예박사 취득



허진규〈사진〉 일진그룹 회장이 9일 포스텍 2017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명예 공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포스텍의 여섯 번째 명예박사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국내 기업인으로서는 최초다.

포스텍은 허 회장이 국내 제조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68년 창업 이래 공업용 다이아몬드, 일렉포일 등 첨단 부품 및 소재 국산화에 성공한 바 있다. 허 회장은 최근 수소전기차용 연료탱크 개발 등 친환경차 산업에 주력하고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 한국메세나협회장 취임



한국메세나협회는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10대 회장에 김영호(74) 일신방직 회장을 선출했다.

김 회장은 2003년부터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을 맡아 활동해 왔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1년 2월까지 3년이다.

미술 컬렉터로도 잘 알려진 김 회장은 현대미술, 현대음악 분야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989년 '일신문화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음악과 미술, 건축, 연극 분야의 단체 및 예술가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2009년 일신방직 한남동 사옥에는 현대음악 전문공연장인 '일신홀'을 건립했으며 2011년부터는 일신작곡상을 신설, 현대음악 작곡가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김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협회 창립 24년간의 공적과 성과를 더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더욱 투명하고 품격 높은 협회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전현경 IT女기업인협회장 취임



IT여성기업인협회장에 전현경〈사진〉 데이터소프트 대표가 선임됐다.

IT여성기업인협회는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정기총회를 개최,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전 대표를 제7대 협회장으로 선임했다. 협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과기정통부 산하의 사단법인인 IT여성기업인협회는 IT분야 여성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와 여성 취업·창업 촉진 등을 목적으로 2001년 9월 설립됐다. IT 분야 여성 경쟁력 강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여성인재 육성, IT 여성기업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공계 분야 여대생과 ICT 여성기업인이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여성인재 양성 프로그램 '이브와 ICT 멘토링' 사업도 펼치고 있다. 전 신임 학회장은 2002년 데이터 백업과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클라우드, 가상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 보호 전문기업인 데이터소프트를 창업한 이후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한영수 한국YWCA회장 선출



한국YWCA연합회는 6~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영수 제1부회장이 제4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한 신임 회장은 1968년 YWCA의 대학 조직인 '대학Y' 회장으로 YWCA와 인연을 맺은 이후 한국YWCA연합회 위원, 실행위원, 회원Y협력지원위원장, 복지사업단 이사,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50년간 YWCA에서 헌신해 왔다.

한 신임 회장은 취임식에서 "100년의 YWCA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달려 있다"면서 "회원들의 소리를 겸손히 받고 시민들, 특히 여성과 청년의 기대를 새겨 듣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기총회 참석자들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에 전국 52개 YWCA가 발 벗고 나설 것을 결의했다.

박은평 기자 pepe@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민정실장 남평오 〈국장급〉 △공직복무관리관 송경원 △성과관리정책관 민용식 △농림국토해양정책관 임상준 △안전환경정책관 정훈 △정무기획비서관 이정원 △민정민원비서관 이효진 △소통지원비서관 한경필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 윤순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강현철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승진〉 △카르텔조사국장 고병희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이용수 △경쟁정책과장 송상민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신고심사심의관 김재수 〈고위공무원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허재우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김응태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혁신정책담당관 민주원 △납세자보호담당관 오덕근 △조사기획과장 심욱기

◆**한국은행** △정책보좌관 민좌홍 △조사국장 이환석 △금융시장국장 이상형

◆**한국조폐공사** 〈하부기관장〉 △제지본부장 류진열 △기술연구원장 김홍조 〈1급 전보〉 △사업처장 이건철 △조달실장 김영석 △제지본부 생산처장 강병욱 △기술연구원 위조방지센터장 유환신 〈2급 승진〉 △제지본부 관리처장 최광언 △제지본부 생산조정실장 채희수 〈2급 전보〉 △미래전략실장 박정배 △영업개발단장 최성호 △스마트워크추진단장 신학수 △화폐본부 관리처장 김태영 △화폐본부 주화처장 이칠홍 △화폐본부 생산조정실장 김교찬 △화폐본부 검사실장 박경원 △ID본부 생산처장 장광호 △기술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권동원 △기술연구원 미래기술연구센터장 홍창석

◆**대구시** △남구 부구청장 최희송 △수성구 부구청장 홍성주 △시민행복교육국장 직무대리 진광식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김종근

◆**한국스포츠경제** △편집국 엔터산업부장 겸 뉴미디어본부 총괄부장 유아정 △뉴미디어본부 디지털뉴스부장 신화섭

부음

▲**김성수**(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씨 별세, **은미**(CEO SUITE 대표)·**태영**(식물연구가)·**은하** 씨 부친상, **유사원**(SAB에너지 대표)·**김현수**(특허법인 명인 대표대리사) 씨 장인상 = 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0일 오전 10시 30분, 02-2258-5940

▲**박병목**(전 의성공고 교장)·**병용**(전 VOA 서울지국장) 씨 부친상 = 7일, 안동병원, 발인 11일 오전 7시, 054-840-0002

▲**이용월** 씨 별세, **김종문**(동해시 부시장) 씨 모친상 = 8일, 동해시 동해전문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8시, 033-531-4740

해외 vs 국내… 짧은 설 연휴 어디든 '가즈아!'

청정자연 품은 남태평양 '팔라우'

유난히 추운 올겨울, 따뜻한 남쪽 나라가 어느 때보다 그립다. 따뜻한 곳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아직 대중에게 덜 알려져 '숨겨진 보물' 같은 남태평양 팔라우는 어떨까. 팔라우는 가족 여행지로 인기 높은 괌, 사이판 등과 비슷한 분위기이지만 비교적 개발이 덜 된 청정자연을 지니고 있어 해양스포츠를 즐기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다. 물가도 저렴한 편이다. 한국에서 팔라우까지 비행시간은 4시간 50분 정도 소요되므로 사나흘가량 비교적 짧은 휴가를 활용해 다녀오기에도 좋다.인터파크투어를 통해 팔라우의 매력을 소개한다.

◇해양 생태계 잘 보존된 '천혜의 자연'에서 해양스포츠를 = 팔라우는 유네스코 산하 기구의 환경 보호 정책 제한을 받아 해양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매력 넘치는 여행지다. 특히 팔라우에서 스노쿨링을 한다면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다채로운 빛깔의 산호 덕분에 바다 속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또 최대 1m가 넘는 대왕조개는 물론 제2차 세계대전 때 침몰한 난파선도 만나볼 수 있다.

◇TV 속 그곳, '해파리 호수'서 해파리 직접 만져볼 수도 = 팔라우에 간다면 100만 마리의 해파리가 서식하는 '젤리피시 레이크(해파리 호수)'를 꼭 가봐야 한다. 바닷길이 끊기며 오랫동안 고립돼 살아온 탓에 천적이 없어 독성을 지니지 않아 만지거나 스쳐도 위험하지 않다. 에메랄드 빛 호수 안으로 들어가 수영을 하거나 해파리를 만져볼 수 있는 체험까지 가능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해파리 호수는 과거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도 방영돼 화제가 된 바 있다.

◇쏟아져 내리는 별빛 속 '밤낚시'… 신선한 회는 별미 = 팔라우에서는 밤까지 즐거운 경험을 이어갈 수 있는데, 밤낚시를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가 유명하다. 어두운 밤 보트를 타고 바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낚시를 즐길 수 있다. 낚시를 위해 보트를 멈춰 세우고 보트에 등을 달아 어둠을 밝힌 뒤 하늘을 올려다보면 쏟아내릴 듯한 무수히 많은 별들로 반짝이는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밤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즉석에서 신선한 회로 떠줘 회까지 맛볼 수 있다.

◇우윳빛 산호바다 '밀키웨이'… 천연 산호가루로 즉석에서 머드팩도 = 팔라우의 록 아일랜드에는 산호바다로 유명한 '밀키웨이'가 있다. 섬으로 둘러싸인 상태에서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아 잔잔한 해수를 이룬 곳으로, 수만 년 동안 침전돼 온 산호가루 덕에 우윳빛을 띤다. 이곳에 간다면 천연 산호가루를 이용해 머드팩을 즐길 수 있다. 가라앉은 머드 산호가루를 떠와서 얼굴을 비롯한 온몸에 바르는 것인데, 산호가루는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다.

◇나무 사이에서 자라는 '맹그로브 크랩'으로 먹는 즐거움까지 = 팔라우에서 꼭 먹어 봐야 할 먹거리로는 '맹그로브 크랩'이 있다. 맹그로브 크랩은 우리나라 게와 모양이 비슷한데, 맹그로브 나무 사이에서 자라는 크랩으로 살이 매우 알차다. 식당에 간다면 취향에 따라 쪄먹거나 기름에 튀겨 먹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해양생태가 보존된 보석 같은 여행지 팔라우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해 해양스포츠를 즐기기 좋은 곳이다. 스노쿨링을 한다면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다채로운 빛깔의 산호 덕분에 바다 속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며, 해파리를 만져볼 수 있는 체험까지 가능하다.

한국서 팔라우까지 비행기 4시간 50분 거리
에메랄드 빛 '해파리 호수'서 이색 물놀이
밤하늘 수놓은 별빛 아래 낚시… 즉석 회 별미
천연 산호가루 머드팩·맹그로브크랩 입도 호강







국내 주요 테마파크와 리조트가 설 연휴를 맞이해 전통 민속놀이 체험, 전통공연뿐 아니라 명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색 이벤트를 마련했다. 에버랜드 '설날 스트레스 날리시개'(왼쪽 위), 한화리조트 쏘라노 설날 풍경(오른쪽 위), 롯데월드 민속놀이 이벤트(아래)

테마파크·리조트 명절 이벤트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국내 주요 테마파크와 리조트들도 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손님맞이에 나선다. 전통 민속놀이 체험, 전통공연뿐 아니라 명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색 이벤트 등을 앞다퉈 내놓으며 설 특수를 겨냥한 마케팅이 한창이다.

에버랜드는 설 연휴기간인 15~17일 '설날 스트레스 날리시개' 행사를 연다. 카니발 광장은 '스트레스 타파존'으로 변신하며 댄스배틀, 막대기 권투, 샌드백, 박 터뜨리기 등 스트레스 해소형 게임을 새롭게 선보인다. 또, 의사로 변신한 연기자들이 광장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고 알약을 증정하는데, 알약은 현장에서 캔디, 초콜릿 등 선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재미를 더한다. 놀이기구를 통해 스릴과 재미, 경험을 선사하는 '코스터 위크'도 특별 진행된다. '코스터 위크'에서는 겨울철 운행을 중단했던 티익스프레스, 롤링엑스트레인, 더블락스핀 등 놀이시설이 재가동돼 다양한 스릴 어트랙션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연휴기간 매일 밤 환상적인 멀티미디어 불꽃쇼도 펼쳐진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15~18일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신년 민속 퍼레이드 '민속 한마당 : 북의 대합주'를 비롯해 거리공연 '풍물 한가락', 비보이와 사물놀이의 퓨전 공연 '무브먼트 코리아' 등 신명 나는 공연들로 채워진다. 또 제기차기, 투호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스테이지도 마련된다.

에버랜드, 15~17일 '설날 스트레스 날리시개'
티익스프레스 등 겨울철 중단 놀이기구 재가동
롯데월드, 비보잉·풍물·민속놀이 등 다채
하이원·오크밸리 리조트도 스키·가족체험 마련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는 메인수조 안에서 한복을 입은 아쿠아리스트가 새해인사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개띠 고객 대상 전통 투호놀이와 룰렛 이벤트를 진행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 황금개띠의 해를 맞아 바다사자 수조에서는 황금물개 생태설명회도 진행한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는 25일까지 미디어아트 작품 전시 '서울스카이, 미디어아트를 새기다 展(전)'이 열린다. 서울 야경, 디제잉 등이 담긴 영상과 설치 작품 등 총 14점의 전시물을 선보여 명절에 가족과 함께 미디어 예술작품을 즐길 기회를 제공한다.

리조트 업계도 명절 특수를 겨냥한 다양한 즐길거리를 준비했다. 오크밸리는 설 연휴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과 겹쳐 스키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 것으로 보고 전 국민이 스키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리프트 무료 탑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크밸리 관계자는 "올림픽을 통해 동계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된 예비 스키어는 물론 연휴 동안 맛보기로 스키를 체험해 보고 싶은 가족 스키어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이원 리조트는 설날 당일인 16일 아침 차례를 지낼 수 있도록 차례상을 준비한다. 차례상을 물리고 나면 오후 5시까지 윷놀이, 팽이치기,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등 전통놀이 체험마당도 열린다.

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에서는 전통음료 시식과 떡메치기, 윷놀이 등 가족 단위로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또 뽀로로 포토존이 마련되며 17~18일에는 클래식 공연도 펼쳐진다.

김민정 기자 mj@

상품의 속살

공기 중 유해물질,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싹'… 분해도 스스로 해결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브랜드 '카도'
가시광 촉매 기술·셀프 클리닝 필터 적용
오존 발생 없고 필터교체 비용 부담 줄여

계절 가리지 않는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는 일 년 내내 사용하는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았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온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올해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다양한 기술, 디자인을 접목한 공기청정기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넘쳐나는 제품들 사이에서 나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 때다.

공기청정기 구매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단연 공기정화 능력과 필터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성능에 대한 검증 여부, 필터의 기능 및 교체 주기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 공간의 크기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기청정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청정공기 공급률(CADR)'을 살펴보는 것이다. 'CADR'란 가전제품의 성능, 특성 등을 비교하기 쉽도록 '미국가전제조사협회(AHAM)'에서 성능을 지표화한 것으로 공기를 얼마나 빠르게 정화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며 그 수치가 높을수록 더 빠르게 청정공기를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브랜드 '카도(cado)'는 공기 중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빨아들여 정화시키는 빠른 공기 청정 속도를 자랑한다. 특히 대표 제품인 'AP-710S'는 청정공기 공급률 부문에서 꽃가루와 담배연기는 450, 먼지는 400의 수치를 획득했으며 이는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카도는 또 가시광선에 반응하는 '가시광 촉매 기술'을 더한 '셀프 클리닝 필터'를 적용했다. 악취를 빨아들인 후 햇볕을 받으면 스스로 분해, 재생되는 '숯'의 정화 원리와 같이 가시광 촉매 기술은 필터에 흡착된 유해물질이 내부에 장착된 가시광선 램프에 반응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도록 돕는다. 유해물질이 스스로 분해되기 때문에 오존 발생이 없고 필터를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필터 교체에 대한 비용 부담도 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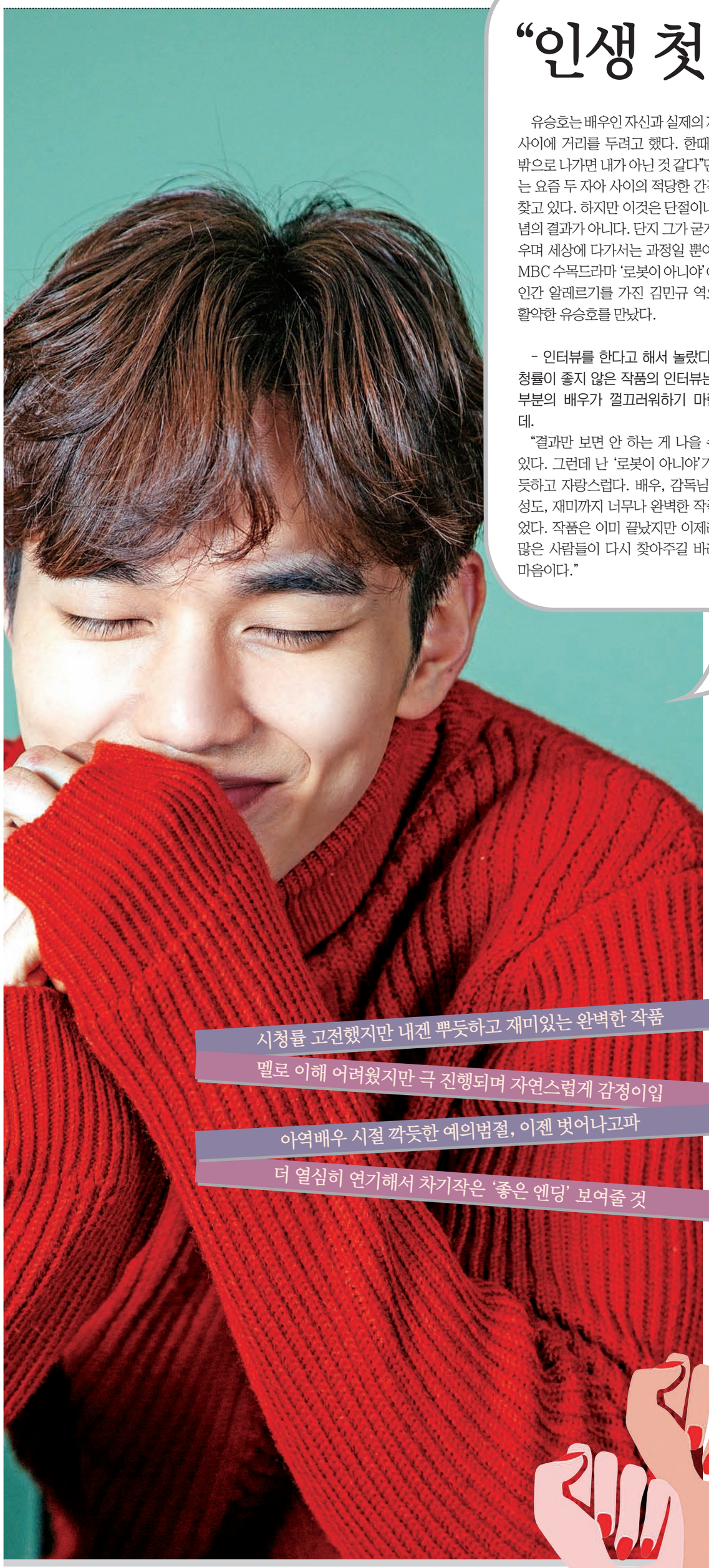
제품 유형은 차량용 제품부터 30평형대 제품까지 다양하게 출시됐다. 고급스러운 메탈 본체로 거실, 침실, 사무실 등 어느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카도를 국내에 소개한 M&S솔루션 측은 "공기청정기는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공기정화 기술력과 성능을 꼼꼼히 비교 확인 후 생활환경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효점 기자 gradually@



MBC 드라마 '로봇이 아니야' 배우

유승호



시청률 고전했지만 내겐 뿌듯하고 재미있는 완벽한 작품

멜로 이해 어려웠지만 극 진행되며 자연스럽게 감정이입

아역배우 시절 깍듯한 예의범절, 이젠 벗어나고파

더 열심히 연기해서 차기작은 '좋은 엔딩' 보여줄 것

"인생 첫 로코… '멜로 알레르기' 극복!"

유승호는 배우인 자신과 실제의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려고 했다. 한때 "문밖으로 나가면 내가 아닌 것 같다"던 그는 요즘 두 자아 사이의 적당한 간격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절이나 체념의 결과가 아니다. 단지 그가 굳게 세우며 세상에 다가서는 과정일 뿐이다. MBC 수목드라마 '로봇이 아니야'에서 인간 알레르기를 가진 김민규 역으로 활약한 유승호를 만났다.

-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놀랐다. 시청률이 좋지 않은 작품의 인터뷰는 대부분의 배우가 껄끄러워하기 마련인데.

"결과만 보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난 '로봇이 아니야'가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배우, 감독님, 완성도, 재미까지 너무나 완벽한 작품이었다. 작품은 이미 끝났지만 이제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 초반 논란이 시청률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전 여자친구의 얼굴을 본 뜬 로봇을 제작한다거나 로봇이 메이드와 유사한 복장을 입고 등장한 장면들이 반발을 샀다.

"흥백균(엄기준 분)이라는 캐릭터를 설명하고자 그런 설정이 들어간 것 같다. 극히 일부분이지만…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다. 여자 로봇이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점도 성(性)적인 맥락으로 비쳐질 수 있겠다는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딥 러닝(Deep Learning)의 과정을 굉장히 강조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한 인간이, 인간에게 받은 상처를 사랑이라는 힘으로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좋았다."

- 전작 인터뷰 당시 멜로 감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차기작으로 로맨틱 코미디물을 골랐다.

"연기가 힘들지는 않았다. 민규가 인간 알레르기 때문에 고립된 채 산다는 설정으로 시작해 극이 진행되면서 갈등을 겪고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다. 흐름에 천천히 적응하면서 찍어서 멜로 감정을 소화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 당신도 민규처럼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으로부터 치유받은 경험이 있나.

"잘 모르겠다. 상처는 많이 받았는데 그냥 그러다가 만다. 타인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 욕구? 많지 않았다. 드라마는 드라마니까, 현실은 현실이고.(웃음)"

- 외롭지 않나.

"외로움은 있는데 못 참거나 못 버틸 정도는 아니다. 예전엔 외로움이 크게 다가왔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사이즈는 같을지언정 그게 예전만큼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 한때 모범적인 이미지 때문에 답답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실제 저와의 거리를 유지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교육받았다. 그런데 집 밖으로 나오면 내가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게 싫었다. 지금은 억지로 바르게 보이려고 크게 노력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밑도 끝도 없이 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켜야 할 선 안에서,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고 있다."

- 일견 세상에 벽을 두르고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배우 유승호는 앞으로 흔들리지 않으면서 나아갈 자신이 있는 건가.

"그렇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배우를 안 했을 거란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사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웃음)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엔딩을 볼 수 있다면 나도 잘 해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은호 기자 wild37@

혼 빠진 아이돌 쏙 빠진 경희대



정용화



조권

정용화 대학원 입학특혜 논란 이어 조권 학칙미달 학위까지…
위반 주체인 학교측 침묵 일관… "사태책임 요구" 목소리 커져

최근 국내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 중 하나는 '경희대 아이돌'이다. 인기 아이돌 가수가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또 다른 아이돌 가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졸업 공연을 하고도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다.

논란의 주인공은 씨엔블루 정용화와 2AM 조권이다. 정용화는 정식 면접을 치르지 않고도 박사과정에 합격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권은 석사 논문을 대체해 제출한 졸업 공연 영상이 학칙이 제시한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학위를 수료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양 측의 공식 입장을 들여다보면 두 사람 모두 억울함을 호소할 만한 정황이 포착된다. 정용화 측은 교수가 소속사 사무실을 방문해 진행한 면접이 정식 면접 절차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학과 입학 또한 학교 측의 지속적인 제안으로 성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 측은 담당 교수의 말을 빌려 "규정에 어긋난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남성 연예인의 대학원 진학이 입영 연기를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는 주장과 함께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정용화 측은 박사 과정 입학이 군 입대를 미루려는 방법이 아니었다면서 입대 계획까지 밝혔지만 대중은 냉담했다.

일각에서는 정용화를 합격시키고 조권에게 학위를 수여한 주체인 경희대학교가 유명 연예인의 뒤에 숨어 비난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용화 팬들은 SNS 해시태그를 통해 "경희대, 정용화 뒤에 숨지 마"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실제로 경희대학교 측은 두 사건에 대해 "내부적인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특히 문제가 된 조권의 졸업 공연과 관련해서는 내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확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학교 측이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내규의 내용을 학생이 알고 따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조권이 SNS를 통해 답답함을 피력한 이유다.

'유명 연예인 학생'은 대학에 소중한(?) 자산이다. 학교와 학과 홍보에 톡톡히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이 입학한 학과는 이듬해 응시 인원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학교 입장에서는 '유명 연예인 모시기'가 손해 볼 것 없는 장사가 되는 셈이다.

규정 위반이 있었다면, 위반의 주체는 학생이 아닌 학교임이 명징하다. 그래서 더더욱 학교 측의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연예인의 유명세 뒤에 숨어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결코 없어야 한다. "그대 살아 숨 쉬는 한 경희의 이름으로 전진하라"는 슬로건이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여겨지길 바란다면 말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



법조계 불씨 문화계까지 확산…

대한민국도 "Me Too!"

"미 투(Me too)." 지난해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 이후 많은 여성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담을 쏟아냈다. 이것은 곧바로 가시적인 움직임이 됐다. 미국 배우 알리사 멜리노가 "만약 당신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다면 SNS 해시태그에 '미 투'라고 적어 달라"고 제안한 데서 시작한 '미 투' 운동은 그것의 규모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보음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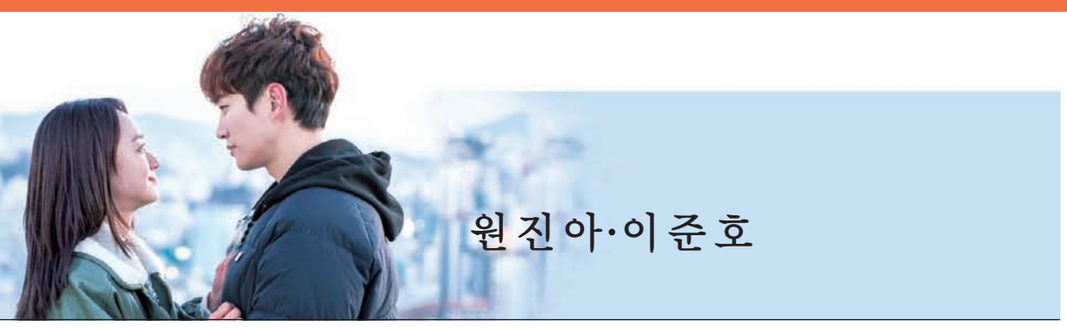
한국에서도 '미 투' 운동의 태동이 포착됐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검찰 고위 요직을 지낸 인사의 성추행 사실을 알린 뒤 벌어진 일이다. '미 투' 운동의 여파는 각계로 퍼졌다. 문화계도 예외는 아니다. 한 독립영화감독은 또 다른 영화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대법원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폭로했다. 그는 "'피해자는 죄가 없다'는 말이 나의 가슴을 다시 한 번 두들겼다"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해 여성이 지목한 감독은 영화 '연애담'을 만든 이현주 감독으로, 그는 실명을 직접 공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은퇴를 선언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5일 이사회를 열고 이현주 감독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여성영화인모임 역시 이현주 감독의 지난해 감독상 수상을 박탈했다. '연애담'의 배급사는 피해 여성에게 사과하며 "앞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진행 과정에서 배급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시를 앞두고 있던 작품의 블루레이 역시 제작을 취소했다.

그리고 이현주 감독과 피해 여성이 함께 수학한 영화진흥위원회 산하 한국영화아카데미가 해당 사건 진상조사팀을 꾸리기에 이르렀다. 여성영화인모임과 임순례 영화감독, 영화사 명필름 심재명 대표 등은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을 곧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SNS를 달군 'OOO_내_성폭력(각계에서 벌어진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운동)'이 단지 '폭로'에만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모습이다.

할리우드에서는 피해자의 연대를 강화한 '미 투' 운동이 실질적인 변화를 지원하고 촉구하는 '타임스 업(Time's Up)' 운동으로 이어졌다.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은 올해 초 뉴욕타임스에 전면 광고를 게재하고 참여를 독려했다.유명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검사가 "해당 연예인을 좋아하지 않았냐", "허리를 비틀면 성관계를 막을 수 있지 않냐"고 묻는 대한민국에서, '타임스 업'은 별나라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변화는 천천히나마 다가오고 있다. 타임스 업.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



인터뷰

JTBC 드라마 '그냥 사랑하는 사이' 마친

원진아·이준호

"먼 길 돌아 이제 연기 첫발…꿈꾸듯 행복"



1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첫 드라마부터 덜컥 주연에 낙점됐다. 배우를 꿈꾸는 이라면 누구라도 부러워할 이야기다. 이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은 JTBC '그냥 사랑하는 사이'로 안방극장에 데뷔한 배우 원진아다.

아이돌 출신도, 대형 기획사에 소속된 것도, 연기 관련 학과에 진학해 나름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도 아니었다. 심지어는 배우를 향한 갈망을 잠시 접고 가계에 보탬이 되려 일반 회사에 취직하기도 했던 든든한 딸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연기 학원도 다니고, 관련 입시를 준비했었어요. 장녀이다 보니 거기에 매달리기보다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4년 전쯤 부모님께서 집에 보탬이 안 돼도 좋으니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서울에 올라가서 연기하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만 했어요. '내가 아르바이트 하러 서울에 올라왔나?' 싶을 정도로요."

지난해 영화 '강철비'서 존재감 돋보여
이어 첫 드라마서 120대 1 뚫고 주연에
"'제2의 수애'요? 민망하면서도 감사"

원진아는 다소 먼 길을 돌았지만 어엿한 배우가 된 것은 인복 덕이었고 자평했다. 일을 하면서 틈틈이 기회를 찾던 중 2014년 '오늘 영화'라는 독립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게 됐다. 하나의 작품에서 만난 인연은 다음 작품의 소개로 이어졌다. 상업영화 오디션을 볼 기회도 얻었다.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지금의 소속사를 만날 수 있었다.

2017년에는 44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강철비'에서 존재감 있는 조연을 맡았다. 북한 소녀 려민경으로 분한 원진아는 엄철우 역의 정우성 곁에서 관객들을 울리고 웃겼다. 짧은 분량이었지만 대중의 뇌리에 각인되기는 충분했다. 그리고 '그냥 사랑하는 사이'가 있었다.

언급했듯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 역을 가져가기 위해 120명의 배우들이 몰렸다. 그러나 정작 12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원진아는 담담했다.

"숫자가 100 단위를 넘어가니까 커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만큼 경쟁을 하시잖아요. 120명 중에 연기를 가장 잘했다기보다는, 제작발표회 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문수의 이미지와 맞았던 것 같아요. 3차까지 오디션을 보고 나서야 '이러다 진짜 주인공 되는 것 아냐?' 싶었죠. 그때부터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그의 단아한 얼굴선과 중저음의 목소리가 더욱 빛났다. 이전에도 종종 나왔던 말이지만, '제2의 수애'라는 별명이 좀 더 널리 알려졌다.

"수애 선배님께 죄송스럽고 민망한 마음이 크죠. 그래도 저를 한 번 더 알아봐 주시는 점은 감사해요. 저는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고, 활동하다 보면 원진아로 봐 주실 날도 오리라 믿어요."

원진아는 본격적으로 배우 인생의 첫 발걸음을 뗀 2017년 12월 21일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냥 사랑하는 사이'의 첫 방송일이자 '강철비'의 시사회 날이었던 당시를 떠올리며 그는 "꿈꾸는 것 같이 행복했다"고 말하며 웃었다. 아직 '신예' 딱지가 어색하지 않은 원진아는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

"먼저 지금은 안 해 봤던 역들을 전부 해보고 싶어요. 또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진짜처럼,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배우로 기억됐으면 해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가짜로 하면 다 들킬 것 같거든요.(웃음)"

"青年 이강두 역할 덕에 소소한 행복 배웠죠"



'연기돌'보다는 '배우'라는 수식이 어울릴 만큼 다수의 작품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지만, 이준호는 아직 스스로를 '2PM의 이준호'라고 소개한다. 2PM 없이는 지금의 자신도 없다는 겸손함에서 비롯된 태도다.

2008년 아이돌 그룹 2PM으로 데뷔한 이후 다른 멤버들이 예능과 연기, 솔로 활동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는 동안 이준호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지난 10년간 활동하면서 암흑기도 있었고,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못하게 되는 상황도 생겼죠. 그래서인지 마음도 급했죠. 그래도 10년차 정도가 되다 보니 조금씩 흐름에 맡기는 여유도 생긴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는 사이'를 찍으면서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제 모난 부분이 좀 깎여 나갔다고나 할까요?"

데뷔 10년… '2PM' 넘어 활동영역 넓혀
이제야 '급할수록 돌아가는' 여유 생겨
가수·배우, 어느 것도 놓치지 않을래요

그의 말처럼, JTBC '그냥 사랑하는 사이'는 경주마처럼 달리고만 싶었던 이준호에게 잠시 휴식과 재충전의 중요성을 일깨운 드라마였다. 작품 속 주연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은 많았지만, 온전히 극을 이끌어가야 했던 적은 처음이다. 이준호는 극 중에서 건물 붕괴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자신도 크게 다쳤지만 동생을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던 청년 이강두로 분했다. 무거운 캐릭터를 연기해야 했고, JTBC에서 내놓는 첫 월화드라마이기도 했던 탓에 그의 어깨가 더 무거웠을 법도 했다. 그러나 외려 소소한 행복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이준호의 설명이었다.

"행복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드라마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던 제가 문수(원진아 분)와 사랑에 빠지면서 '행복 별 것 없네'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정말 와닿은 부분이었어요.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냥 사랑하는 사이' 속 이준호가 맡은 강두의 직업은 '잡부(막일꾼)'다.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고, 여차하면 배까지 탔다. 시청자들은 그를 '마성의 잡부'라고 부르며 애정을 아끼지 않았지만, 고된 것은 고된 것이었다.

"촬영하면서 저희끼리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 드라마는 토목 드라마인데 멜로가 살짝 곁들여진 것이라든지, '체험 삶의 현장'이 아니냐고도 했죠.(웃음) 그래도 배우로서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한꺼번에 하면서 다양한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배는 이틀 탔는데, 뭍으로 올라와서도 일주일은 세상이 울렁거리더라고요."

배우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본업인 가수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냥 사랑하는 사이'를 찍으면서도 일본 콘서트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바쁘게 보냈다. 최근에는 군 복무 중인 택연을 제외하고 2PM 멤버 전원이 JYP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하며 그룹 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가수와 배우라는 직업을 모두 평생 가지고 가고 싶고, 잘하고 싶다는 건 여전해요. 무대에 올랐을 때는 세 시간 동안 내 세상이잖아요. 온전히 제 세상이잖아요. 배우로 살 때는 제가 아닌 다른 인물로 살 수 있고요. 둘 다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이제 급하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않아요. 두려움 없이 도전해 보려고 해요."

라효진 기자 thebestsurplus@

한국판 '마더' 일본판 '미생'

드라마 리메이크 주고받는 韓·日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일본 대중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다. 이전에는 사회 분위기상 일본 문화 향유가 암암리에 이뤄졌고, 표절도 횡행했다. 주로 수입됐던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주인공의 이름 등을 바꾸는 등 한국화 과정을 거쳐야 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 드라마 리메이크가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 잡았다. SBS '101번째 프러포즈', MBC '하얀거탑', KBS2 '꽃보다 남자'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일본 드라마 특유의 옴니버스식 구성이나 만화적인 분위기 등이 우리나라 시청자들에게도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한류 스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역수출을 노리는 경우도 있었다. MBC '장난스런 키스'와 SBS '아름다운 그대에게'는 한국에서 흥행에 참패했으나 아시아 및 유럽 일부 지역에 수출되며 쏠쏠한 부가 수입을 얻었다.

최근까지도 다양한 일본 드라마들이 우리나라에서 재탄생됐다. 현재는 각본가 사카모토 유지의 동명 원작을 바탕으로 한 tvN '마더'가 방영 중이다. 연내에는 후지TV에서 만든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 '최고의 이혼' 등이 제작 및 편성을 논의 중이다.



일본에 수출된 KBS2 '겨울연가'.



각본가 사카모토 유지의 동명 원작 tvN '마더'.



후지TV에서 'HOPE~기대 제로의 신입사원~'이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 된 tvN '미생'.

재밌는 것은 일본에서도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KBS2 '겨울연가'나 MBC '대장금' 등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를 그대로 수입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내용만 취하고 일본인들이 만드는 리메이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tvN '미생'은 후지TV 'HOPE~기대 제로의 신입사원~'이라는 이름으로, KBS2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동명의 드라마로 TBS에서 재창조됐다. 이 외에도 tvN '시그널'이 리메이크를 앞두고 있다.

양국이 리메이크를 선택한 공통적 배경은 오리지널 시나리오의 고갈이다.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시청자들은 피로감을 느끼지만 새 이야기를 개발하는 데는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때문에 흥행에 성공한 옆 나라의 인기 드라마는 제작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소재다.

하지만 문화 내수 시장이 탄탄한 일본에서 단순 수입이 아닌 리메이크에 나섰다는 점은 좀 더 주목해 볼 만하다. 이는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한류 마니아들 뿐만 아니라 범대중적으로 인기를 끌 가능성을 인정받았음을 시사한다. 일본 내 한류는 경색된 한일관계에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또 이처럼 문화적 비대칭 관계였던 양국이 '리메이크 주고 받기' 단계까지 왔다는 점은 아시아 문화 산업의 패권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라효진 기자 thebestsurplus@

‘★들의 전쟁’ 세계 1위 누가 될까


더스틴 존슨


로리 매킬로이


제이슨 데이


조던 스피스

PGA AT&T 페블비치프로암 개막
존슨·매킬로이·데이, 올해 첫 대결
지난주 ‘컷오프’ 스피스도 나와
최경주·배상문·김민휘 출전

‘더스틴 존슨(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제이슨 데이(호주), 조던 스피스(미국), 존 람(스페인).’

이번 주에는 올 시즌 들어 가장 화려한 샷 대결이 펼쳐진다. 컬러가 다른 별들의 ‘쩐(錢)’ 전쟁이 벌어진다.

무대는 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에서 개막한 미국프로골프(PGA)투어 AT&T 페블비치프로암(총상금 740만 달러).

지난달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우승한 존슨이 한 달 만에 다시 우승에 도전한다. 여기에 지난달 29일 파머스 인슈런스 오픈에서 20개월 만에 우승에 오른 제이슨 데이가 출전한다. 4개월 만에 그린에 복귀해 올해 두 차례 유러피언프로골프투어에서 2위, 3위를 차지한 로리 매킬로이가 가세해 흥행몰이에 나선다. 올해 들어 존슨, 데이, 매킬로이가 PGA투어 대회에서 샷 대결하는 것은 처음이고, 매킬로이도 2018년 들어 PGA투어 대회에 첫 출전이다.

지난주 컷오프를 당해 자존심이 상한 세계랭킹 3위 조던 스피스도 이 대회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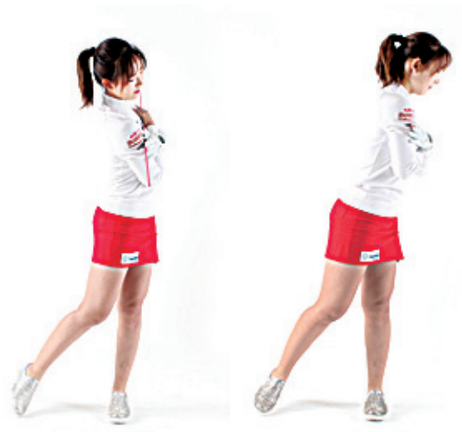
683주 동안 세계골프랭킹 1위를 지켰던 ‘골프지존’ 타이거 우즈(미국)가 2013년 세계랭킹 1위 자리에서 물러난 뒤 세계랭킹 1위에 올랐던 선수들이 모두 모였다. 지난주 세계랭킹 1위를 기대했지만 마지막 날 부진해 랭킹 2위에 머문 존 람도 이 대회에 출전해 다시 한번 랭킹 1위에 도전한다.

한국 선수는 최경주(48)와 배상문(32), 김민휘(26)가 출전한다.

선수들은 아마추어와 함께 경기를 갖는다. 1~3라운드는 페블비치 골프링크스(파72·6816야드), 스파이그래스힐 골프클럽(파72·6953야드), 몬터레이 페닌슐라 컨트리클럽 쇼어코스(파72·6958야드)를 순회하면서 치른다. 3라운드 성적으로 컷오프를 결정한다. 본선에 오른 선수들은 페블비치 골프링크스에서 열리는 최종 라운드에서 순위를 가린다.

아마추어는 대부분 저명인사 및 스포츠 스타, 배우 등이 출전한다. 코미디언 빌 머레이, 록밴드 트레인의 리드 싱어 팻 모나한, 배우 크리스 오도넬,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 선발투수 저스틴 벌랜더, 미국프로풋볼(NFL)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쿼터백으로 명성을 날린 토니 로모 등이 프로들과 함께 플레이를 즐긴다. 특히 더스틴 존슨의 장인인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의 전설적인 공격수 웨인 그레츠키도 사위와 함께 출전한다.

SBS골프는 9~12일까지 오전 5시부터 생중계한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오르쪽 동작처럼 몸을 그냥 돌리면 상체가 덮어지는 자세가 나온다. 올바른 스윙을 하려면 상체가 볼을 따라 나가는 동작보단 볼보다 뒤에 살짝 잡혀 있는 동작이 더 실수 없는 샷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몸 방향 따라 스윙 궤도가 달라진다


김수현의 fun한 골프레슨

몸의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클럽의 스윙 궤도가 달라집니다. 보여지는 동작과 실제 느껴지는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잘못된 사진처럼 몸을 그냥 돌리는 느낌으로 회전하면 상체가 덮어지는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스윙은 똑바로 서 있는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닌, 숙여져 있는 상태로 돌기 때문에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숙여져서 회전하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확 덮여오는 것이 아닌 밑으로 떨어지며 도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잘못된 동작처럼 볼을 치고 난 후, 오른쪽 어깨가 높게 되어 있다면 잘못 회전이 된 것입니다. 이 동작이 결국 다운스윙 때 덮어 치는 샷을 유발하고 슬라이스로 연결되게 합니다. 양쪽 어깨는 스윙 중에 항상 턱 밑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 움직임을 준다면 어깨가 턱보다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회전을 잘못 주게 되면 오른쪽 어깨가 턱의 위치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스윙의 느낌을 갖기 위해서 클럽을 몸 앞에 세우고, 왼팔 하나로 클럽을 잡도록 합니다. 왼팔이 앞으로 나란히 하듯 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클럽 없이 오른손으로만 스윙 동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펴져 있는 왼팔 밑으로 오른팔을 뿌려주는 것이죠. 왼쪽이 막힌 상태로 팔이 뻗어지기 때문에 상체가 먼저 나갈 수 없고, 오른쪽 어깨도 높아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인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오른팔이 왼팔 밑으로 던져지는 느낌을 가지고 클럽을 휘둘러 보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동작으로 스윙을 하면 상체가 볼보다 조금 뒤에 남아 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상체가 볼을 따라 나가는 동작보단 볼보다 뒤에 살짝 잡혀 있는 동작이 더 실수 없는 샷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체가 너무 빨리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지면을 오래 보고 스윙한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동작을 만들면 상체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오른쪽 어깨 또한 높아지지 않게 됨으로 볼의 정확한 임팩트 그리고 방향성을 많이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 1분골프레슨 교습가

32개 골프장, 설 연휴에도 “굿 샷”

설 당일 휴장은 67곳 달해
그린피 할인·음식제공 이벤트

설 연휴기간에 32개 골프장은 4일간 휴장 없이 영업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KGBA·회장 박정호)는 전국 골프장을 대상으로 2018년 설 연휴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휴·개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설날인 16일을 포함해 휴장 없이 4일간 개장하는 골프장이 32개사, 설 당일만 휴장하는 골프장은 67개사로 파악됐다. 이틀이나 3일간 휴장하는 골프장도 8개사가 있다.

그러나 올겨울은 폭설과 한파로 급작스럽게 휴장을 실시하는 골프장이 발생하는 등 개별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휴·개장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어 골프장으로 출발 전 해당 골프장에 휴·개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설 당일을 비롯해 설 연휴 기간 그린피 할인, 음식 제공 등 이벤트도 펼친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국내 골프장 설연휴 휴 · 개장 현황

휴장 없음(32개사)
고창, 골든베이, 골프존카운티청통, 남원상록, 라온, 라헨느, 롯데스카이힐제주, 무등산, 문경, 발리오스, 블랙스톤, 세라지오, 세븐밸리, 센추리21, 썬힐, 에딘버러, 에머슨, 에버리스, 오라, 오션비치, 은화삼, 이포, 인천국제, 중원, 캐슬렉스서울, 코리아, 파인비치, 파인스톤, 플라자CC설악, 핀크스, 해비치(제주), 화순

설 당일(16일)만 휴장(67개사)
가야, 경주신라, 광주, 그랜드, 김해상록, 김포시사이드, 남여주, 노벨, 뉴스프링빌, 뉴스프링빌II, 뉴코리아, 대구, 도고, 동래베네스트, 동원썬밸리, 동촌, 동훈힐마루, 드비치, 라데나, 레이크사이드, 레이크힐스용인, 리베라, 마론뉴데이, 마우나오션, 베어즈베스트청라, 베어크리크, 베이사이드, 보라, 부곡, 부산, 블루원상주, 블루원용인, 사천, 서서울, 세종필드, 송추, 수원, 스카이밸리, 신라, 신원, 실크리버, 안성, 양산, 양주, 어등산, 에덴밸리, 에이원, 여주, 오너스, 오션힐스영천, 오션힐스청도, 용원, 이스트밸리, 이천마이다스, 임페리얼레이크, 정산, 제일, 중부, 지산, 진주, 창원, 통도파인이스트, 88, 프리스틴밸리, 한양, 한원, 화성상록

4일간 휴장(15개사)
곤지암, 금강, 남부, 남춘천, 무주덕유산, 버드우드, 버치힐, 블루마운틴, 알펜시아, 용평, 우정힐스, 잭니클라우스, 제이드팰리스, 티클라우드, 화산

15일 · 16일 휴장(7개사)
그린힐, 로얄포레, 블루헤런, 사우스스프링스, 솔모로, 유성, 클럽비전힐스

기타휴장(1개사)
페럼 : 15, 16, 17일 휴장, 18일 개장

설 연휴 이벤트

그린피 할인 : 마론뉴데이, 무등산(11만 원), 발리오스(15만 원, 비회원 4인 내방 시 2만 원 추가 할인), 신원(15만 원)
뉴스프링스 : 홈페이지 별도 공지
라온 : 설 당일 13시 샷건 진행
롯데스카이힐제주 : 간식 제공
솔모로 : 회원 떡국 제공
양산 : 제기차기, 투구놀이 등
에머슨 : 떡 · 만둣국 제공
오라 : 도민 이벤트
코리아 : 한복 착용 입장객, 2대 입장객 이벤트(윷놀이)
파인비치 : 떡국 · 식혜 제공





라운딩 즐기고, 온천까지 ‘1석2조’

日 벳푸CC 창립회원 모집
3박4일 72홀 투어 67만원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골퍼들은 따듯한 곳이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가깝고도 기온이 적당한 곳은 역시 일본이다. 특히 온천과 골프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을 터. 바로 온천으로 명성이 자자한 일본 오이타현의 벳푸가 그런 곳이다.

때를 맞춰 일본 오이타현의 벳푸컨트리클럽이 골프를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창립회원을 모집한다.

회원은 실버 120만 원에 기명 1인, 골드는 220만 원으로 기명 1인, 동반 무기명 1인으로 5년간 회원대우를 받을 수 있다.

3박 4일 동안 72홀 도는 데 이용금액은 정회원이 67만 원, 초청가는 89만 원, 투어 정상가는 139만 원이다. 그린피, 숙박비, 조식과 석식, 카트피가 포함된 가격이다. 중식과 송영비는 별도다. 숙박은 골프장 내에 있는 골프텔을 이용하며 이곳에 온천이 있다. 특히 골프장과 20분 거리에 있는 벳푸 시내 관광이 가능하다.

인천공항에서 오이타공항까지는 1시간 30분, 공항에서 벳푸CC까지는 30분 거리다.

벳푸는 츠루미 18홀, 유후 18홀로 총 36홀이다. 골프장 내에 벳푸리조트 및 숙박시설, 그리고 온천이 있다.

벳푸시는 일본 규슈 오이타현 중부 벳푸만에 츠루미산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온천이 시내 각지에서 용출되며, 용출량이 일본 1위다. 2800개 이상의 원천수에서 하루 분출되는 온천량은 13만7000kl에 이른다. 특히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온도가 높은 분기, 열탕 등이 분출되는 토지가 있어 사람들이 이곳을 지옥이라 불렀다고 한다. 바다 지옥(우미지고쿠)은 코발트색 온천으로 섭씨 98도다.

1930년 설립된 벳푸CC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츠루미산 450m 구릉지역에 조성돼 있다. 바다를 끼고 있어 풍광이 미려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온화해 일본에서는 물론 한국 골프여행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100년 된 삼나무와 전나무의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삼림욕을 하면서 라운드를 할 수 있다.

한국인 직원이 상주해 골프투어를 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창립회원에 한해 1회 벳푸시내 대형마트까지 무료 송영서비스를 실시한다.

2인플레이는 1일 1인당 2000엔, 주말(토·일요일), 공휴일에는 3000엔 추가된다. 물론 회원에 한한다.

창립회원은 가고시마지역 기리시마로얄 & 다카치마컨트리클럽 이용 시 준회원 대우를 해준다.

석식은 작은 그릇에 다양한 음식이 조금씩 순차적으로 담겨 나오는 가이세키, 닭고기 샤브샤브, 창코나베 세트 등 최고급 일품요리가 제공된다.

특히 창코나베는 스모 선수들이 즐겨 먹는 독특한 요리로 냄비에 해산물, 고기, 채소 등을 넣고 끓인 뒤 폰즈를 찍어 먹는 것이 별미다.

국내 총판은 (주)골프글로가 갖고 있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신무기’ 총출동 골프박람회 구경 오세요

80여 개 골프용품 업체 신제품 선봬
세텍서 11일까지… 경품·이벤트도

날씨는 쌀쌀하지만 주말에 시간이 나면 세텍(SETEC)으로 발길을 돌려 보자.

올 들어 첫 골프박람회가 열린다. 본격 골프시즌을 앞두고 다양한 골프용품을 만나볼 수 있다. 더골프쇼 프리시즌이 11일까지 서울 대치동 학여울역에 있는 세텍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80여 개의 골프용품 업체가 출품해 골프의류, 스윙교정기구, 시뮬레이션 골프시스템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골프클럽 등 관련 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아웃렛도 열린다. 기발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특허 용품이 선을 보인다. 편리하게 부킹이 가능한 골프멤버십도 마련됐다.

미즈노 부스에서는 신제품 클럽을 시타해 볼 수 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미즈노골프 피팅교환권을 증정한다. 니어핀, 장타대회에 참가하면 미즈노 MX-330드라이버와 T7웨지 등을 받는 행운도 주어진다. 이벤트는 골프존카운티와 함께 진행한다.

주중 50명, 주말 1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골프볼 1슬립을 주고, 더골프쇼 전용앱을 통한 입장객을 대상으로 한 깜짝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그리고 매일 100명을 대상으로 박성현의 승리기원 응원엽서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영국의 명품 브랜드 드루벨트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2018년 첫 골프박람회가 세텍에서 11일까지 열린다.

올 설 선물도 TS샴푸가 대세

Trust
SINCE 2010



TS모델 황치열, 송지효, 차인표

꼭꼭 감아라 TS로 감아라

TS제품



TS샴푸 선물을 살 수 있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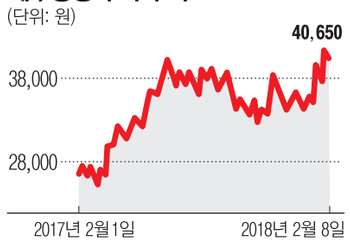
GS SHOP · CJ O SHOPPING · K SHOPPING · W shopping · SK stoa
SHINSEGAE · LOTTE DEPARTMENT STORE · the Galleria · HYUNDAI DEPARTMENT STORE · AK PLAZA · SHINSEGAE DUTY FREE · Galleria DUTY FREE
SM DUTYFREE · CITY DUTY FREE · LOTTE Mart · MEGA MART · 하나로마트 · 순천파머스마켓
LOTTE.com · SSG.COM · emart · emart everyday · E-MART TRADERS · GS25 · OLIVE YOUNG
watsons · LOHBS · MEMEBOX · AUCTION · 쇼핑 · Gmarket · INTERPARK
CJmall · 11ST · KIM'S CLUB · Hmall.com · coupang · TMON · 위메프

※ 특판문의 : BG글로벌 070-8637-38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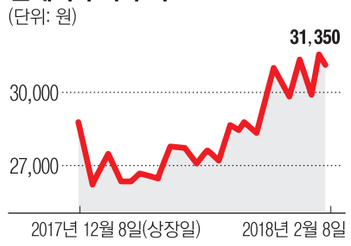
KONEX 코넥스상장법인 LISTED COMPANY | 탈모닷컴 talmo.com

LCC株 날아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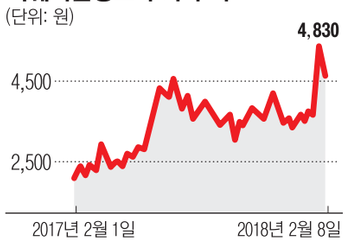
제주항공 주가 추이 (단위: 원)



진에어 주가 추이 (단위: 원)



티웨이홀딩스 주가 추이 (단위: 원)



설 연휴 앞두고 단거리 국제노선 점유율 高點 돌파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홀딩스 나란히 신고가

"유가 상승에도 실적 견조… 수요 개선세 계속될 것"

올 초 항공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저가 항공사(LCC)의 단거리 국제노선 점유율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제주항공은 전날보다 3.17% 오른 4만650원에 거래됐다. 7일 장중에는 4만1550원까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한 달간 각각 98억 원, 124억 원어치를 각각 사들이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해 12월 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진에어 역시 2일 3만19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이달 들어 상승세다. 이날 역시 전일 대비 0.97% 오른 3만135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이외에도 티웨이항공을 계열사로 보유한 티웨이홀딩스가 지난달 29일 577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관련 주가가 일제히 오름세다.

저비용 항공사들의 주가 상승은 국제노선의 수송객 수가 증가하면서 점유율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1월 저비용 항공사의 단거리 국제노선 점유율은 41.3%를 기록하며 2017년 4월(41.1%) 이후 고점을 경신했다. 주요 항공사별 국제노선 점유율도 대부분 확대됐다. 제주항공의 국제노선 점유율은 지난해 12월 9.3%에서 올해 1월 9.4%로 개선됐다. 진에어와 티웨이항공 역시 각각 7.8%, 5.6%로 같은 기간 상승했다.

저비용 항공사의 수송객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3.7%로 12월(16.7%) 대비 다소 둔화했지만, 지난해 설 연휴가 1월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양호한 수치라는 분석이다. 특히 국제노선 수송객 수 증가율은 29%에 달했다.

실적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33.3% 증가한 9963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4% 늘어난 1016억 원이다. 진에어의 지난해 매출액은 8884억 원, 영업이익은 97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최근 유가 상승에도 2017년 4분기 실적은 견조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항공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그는 "유류 할증료 효과가 예상보다 컸고, 탑승률 개선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새해 들어서도 수요 개선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두선 기자 sun@

'테슬라 상장 1호' 카페24, 기분 좋은 출발

공모가보다 48.6% 오른 8만4700원 마감… 향후 상장할 기업에 긍정적 영향 주목

'테슬라 상장 1호' 카페24가 코스닥시장 상장 첫날 공모가를 큰 폭으로 상회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던 테슬라 상장 제도에 적지 않은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일 카페24는 시초가보다 200원(0.24%) 오른 8만4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시초가는 공모가(5만7000원) 대비 48.2% 오른 8만4500원으로 결정됐다. 카페24의 주가는 장중 9만470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분을 반납했다.

이날 종가는 상장 전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던 주가에 근접한 모습이었다. K-OTC에서 지난해 초 약 1만 원에 거래되던 카페24의 주가는 이후 꾸준히 상승해 7일 9만5500원을 기록했다.

카페24는 앞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과 일반투자자 공모청약에서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다. 지난달 23일과 24일 진행된 수요예측에서는 672.7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희망 공모가 밴드(4만3000~5만7000원)의 최상단으로 공모가가 결정됐다. 이어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일반공모청약에서는 731.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 3조7530억 원의 증거금이 몰리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8일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카페24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원대 한국IR협의회 회장,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재석 카페24 대표이사, 조웅기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황웨이청 유안타증권 대표이사, 김재철 코스닥협회 회장.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이런 추세라면 주관사가 풋백옵션(환매청구권)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상장 요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모가격의 90%인 5만1300원으로 주관사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유지될 경우 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카페24 이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테슬라 요건 상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조건부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코스닥 상장 요건이 개정되는 데다, 테슬라 1호 기업의 성공으로 주관사 및 거래소 상장심사에 대한 신뢰가 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카페24의 성공을 테슬라 요건 전체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카페24는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도 있어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이라며 "향후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기업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민호 기자 minori3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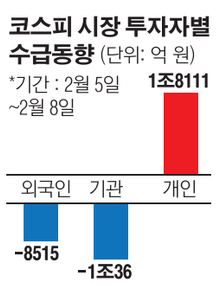
외인·기관 '쌍끌이 매도'… 코스피, 2400선 힘겹게 방어

이주의 수급동향

美증시 폭락 여파 변동성 확대

개인 홀로 1조8111억 순매수

코스피 시장 투자자별 수급동향 (단위: 억 원)



코스피 시장 외국인 상위 순매수 종목 (단위: 억 원)

순위	종목명	투자금액	순위	종목명	투자금액
1	SK하이닉스	2,010	6	대한항공	170
2	롯데쇼핑	468	7	LG디스플레이	167
3	삼성에스디에스	419	8	KODEX 200TR	163
4	엔씨소프트	369	9	현대로보틱스	146
5	LG생활건강	249	10	LG	131

미국발 쇼크에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거세게 팔아 치웠다. 코스피지수는 간신히 2400선을 사수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5일부터 전날까지 코스피시장에서 총 851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 역시 같은 기간 1조36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개인은 홀로 1조8111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전날 코스피지수는 2407.62로 마감, 전주 대비 117.77포인트(4.66%) 하락했다.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란 우려에 뉴욕증시가 폭락하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코스피에 전해졌다. 연일 약세를 이어간 코스피는 7일 종가가 2306.56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코스피가 2400 밑으로 마감한 것은 지난해 9월 29일 이후 처음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단기 위험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증시 급등락에서도 확인했듯이 당분간 급격한 변동성 확대가 이어진다면 큰 폭의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서 "한국 증시에 대한 불안 심리와 수급 여건 위축으로 인한 약세 분위기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2010억 원)였다. 이 기간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35% 상승했다. 이어 △롯데쇼핑(468억 원) △삼성에스디에스(419억 원) △엔씨소프트(369억 원) △LG생활건강(249억 원) △대한항공(170억 원) △LG디스플레이(167억 원) 등을 고루 담았다.

반면, 삼성전자는 3924억 원 내던졌다. 삼성전자우선주도 512억 원어치 팔아치웠다. 이 밖에 △카카오(-1413억 원) △LG화학(-1090억 원) △만도(-748억 원) △삼성SDI(-486억 원) 등을 팔아치웠다. 기관은 △TIGER 코스닥150(1068억 원) △KODEX 200(491억 원) △KODEX MSCI Korea TR(485억 원) △KODEX 인버스(419억 원) 등 상장지수펀드(ETF)에 집중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

유혜은 기자 euna@

NH투자증권, 베트남 현지법인 'NHVS' 출범

"베트남 선두권 종합증권사 도약…

핀테크 발전에도 적극 기여할 것"

NH투자증권이 베트남 현지법인(NHVS:NH Vietnam Securities)을 출범하고, 핀테크 확산의 교두보로 삼는다. 9일 하노이 현지법인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부 치 중 베트남 증권위원회 국제협력국장, 부이 황 하이 증권감독국장 등 베트남 증권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김범구 주베트남대사관 국세관, 이해송 금융감독원 하노이 주재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1년여의 현지 지분 인수작업을 통해 합작법인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이후 약 3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현지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한 상태다. 2009년 베트남 현지 증권사인 CBV증권의 지분 49%를 인수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NH투자증권은 외국인 투자자의 100% 지분 보유가 가능해지자 현지법인 출범을 결정했다.

베트남 현지법인 초대 법인장에는 NH투자증권에서 오랫동안 투자은행(IB) 비즈니스를 담당했던 문영태 전무가 임명됐다. 문 법인장은 "리테일 비즈니스는 물론 IB, 트레이딩, 자산운용 업무 등을 모두 수행하며 NHVS를 베트남 선두권 종합증권사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은 베트남의 핀테크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앞서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25일 하노이를 방문, 팜반황 베트남 증권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주베트남 한국대사관과 금감원 하노이 사무소, 베트남 증권위원회(SSC)와 함께 베트남 핀테크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베트남 정부 기관의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은 "우리는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단기적 수익 목표보다 현지 시장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베트남 현지법인 출범에 맞춰 김용환 회장님과 베트남 증권위원회가 현지 핀테크 기술 관련 연구에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고, NH투자증권이 그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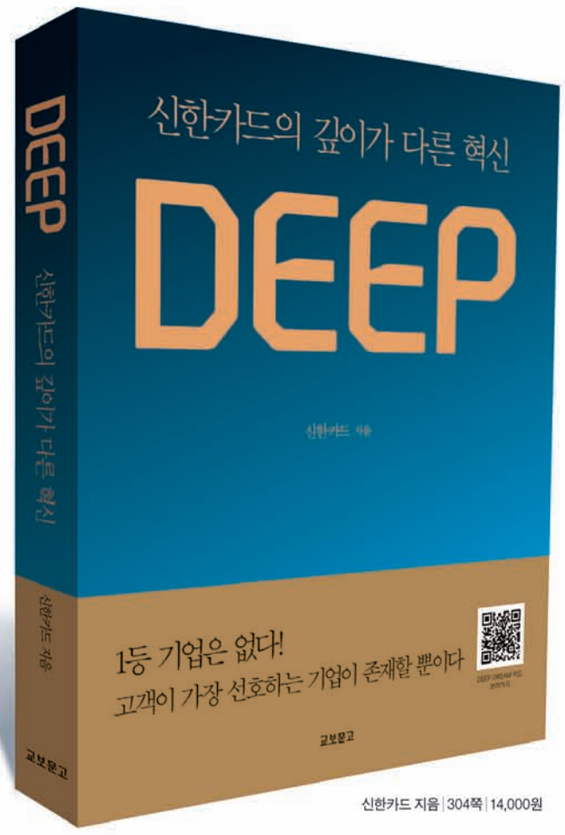
※전국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4차산업혁명의 시대,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카드업계 1등기업 신한카드가 공개하는 금융의 미래

— 2,200만 고객 데이터라는 압도적 빅데이터
— 업계 최초로 설립한 빅데이터센터
— IoT의 시작점 커넥티드 카 커머스
— 생체인증 핀테크로 열리는 카드 없는 사회
—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 예방하는 사이버 금융범죄……

더 안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사용자 개개인에 딱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신한카드의 깊이가 다른 혁신의 철학 'DEEP'이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간다!



신한카드 지음 | 304쪽 | 14,000원

有增 유니슨 "부실기업 꼬리표 뗀다"

363억 中 200억 차입금 상환… 패스트 트랙 졸업 전망
대용량 풍력발전 사업 속도… 연내 국제인증 취득 계획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이 성공적으로 유상증자 절차를 마무리하며, 재무구조 개선에 탄력을 받게 됐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니슨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률이 108.28%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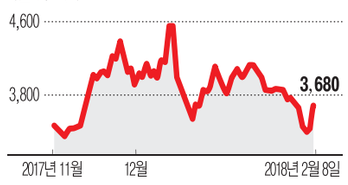
청약주식수는 1407만6013주로 발행예정 주식수 1300만 주를 107만6013주 웃돌았다. 초과청약주식수는 206만5606주, 초과청약한 주주는 초과청약주식수의 47.91%를 배정받게 된다. 이번 유상증자 확정발행가액은 2795원이다.

유니슨은 주주배정에서 초과 청약되며 실질적인 유상증자 절차를 마무리했다. 13일 주금납입, 26일 주권교부, 27일 주권상장 절차만 남게 됐다. 유상증자 모집액은 363억 원이며, 이 가운데 200억 원은 차입금 상환에 쓰이고 나머지 163억 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증자 대금으로 일부 부채를 상환하면서 유니슨은 패스트 트랙(채권자 자율협약)에서 졸업하게 될 전망이다. 패스트 트랙은 일시적으로 자금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유니슨은 2008년 단조사업투자 실패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유니슨의 부채 이자율은 6~7%에서 4~5%대로 낮아져 연간 약 30억 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채비율도 지난해 말 321%에서 올해 186%로 낮아져 재무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유니슨 주가 추이
(단위: 원)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유니슨은 올해 대용량 풍력발전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며 사업 역량도 강화한다는 포부다. 올해 5월 4.2㎿급 육·해상 공용 대용량 풍력발전기 시제품을 전남 영광군에 성공적으로 설치하고, 연내 국제인증까지 취득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유니슨은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촉진 정책에 발맞춰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주주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유니슨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리포트를 통해 "국내 풍력업체는 두산중공업과 유니슨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유니슨의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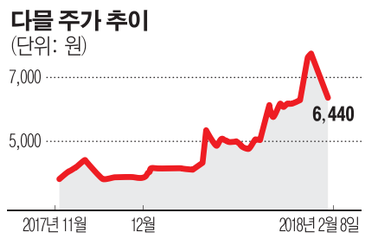
이어 "부실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재무적으로 정상화가 되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향후 국내 대기업과 발전회사들과 공동으로 개발할 풍력단지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권태성 기자 tskwon@

손 바뀐 '다믈멀티미디어' 株價 나흘새 19% 떨어져

MP3플레이어·오디오 IC 제조 업황 불황으로 3분기 연속 적자
최대주주가 '이야페이'로 바뀌자 투자자들 자금확보 능력 의구심

다믈 주가 추이
(단위: 원)



반도체 설계 회사 다믈멀티미디어의 주가가 4일 만에 20% 가까이 급락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다믈멀티미디어의 주가는 전일 대비 2.42%(160원) 내린 6440원에 장을 마쳤다. 나흘 연속 하락세다. 지난주를 7910원으로 마쳤던 이 회사는 4일 만에 19%가량 떨어졌다.

다믈멀티미디어는 멀티미디어 반도체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1998년 설립됐다. 코스닥 시장에는 2007년 7월 입성했다. 주요 제품은 MP3플레이어와 오디오 등에 들어가는 광집적회로(Optical IC)와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IC 등이다. 매출의 100%가 멀티미디어 반도체에서 나온다.

하지만 업계 불황 등으로 최근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1분기 8억 원의 영업손실을 거뒀던 다믈멀티미디어는 이후 3분기 연속 적자에 빠졌다.

지난해에는 대선 테마주에 휩쓸리는 악재도 경험했다. 지난 대선 무렵 다믈멀티미디어는 전영홍 대표가 안랩의 전 대표와 대학원 동문이라는 사실에 안철수 대선 테마주로 거론되며 널뛰기 주가를 보였다.

최근에는 경영권 분쟁도 겪었다. 선글라스 전문업체 페이크미는 지난해 11월 다믈미디어 주식 약 32만 주를 신규 취득하면서 경영 참가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다믈멀티미디어는 가상화폐 결제업체 이야페이 품으로 안겼다. 3일 이야페이는 다믈멀티미디어의 지분 114만4568주를 약 120억 원에 사들인다. 이야페이 측은 "다믈멀티미디어 경영 참가를 목적으로 지분 인수에 나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투자자의 반응은 냉랭하다. 이야페이의 자금 확보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야페이는 지난해 12월 설립된 신설회사로 자산은 3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사업 분야도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 사업으로 반도체 설계와 관련성이 적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분야가 상이한 업체인데다,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사들인 셈이라, 자금 마련에 대한 투자자의 불안감이 반영됐다"고 풀이했다.

이야페이는 이달 말 양수도 금액 중 계약금 12억 원을 제외한 108억 원을 지급하고, 내달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주현 기자 jooh@

기가레인, 삼성 OLED 생산라인에 부품 추가 공급

지분 49% 보유 관계사 위드멤스 패널 불량검사 프로브유닛 제공

기가레인이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사 위드멤스가 삼성 플렉서블 OLED 전 생산라인에 프로브유닛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가레인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 반도체 장비가 올해 전년 대비 두 배가 넘는 매출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일 기가레인 관계자는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사 위드멤스가 삼성 플렉서블 OLED생산라인 A2, A3, A4에 모두 공급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삼성디스플레이가 애플에 공급하는 플렉서블 OLED용으로도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달 중 천안 A1 공장 전체를 '셧다운(라인 폐쇄)' 한 뒤 자동차·플렉서블 OLED 생산라인으로 변경한다.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사용하던 OLED가 애플, 중국 주요 업체들까지 확대되고 있어 평판 위주로 생산 중인 A1을 전면 개편해 플렉서블 OLED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현재 장비 반입 시기를 조율 중으로 삼성디스플레이는 A1 공장의 성공에 힘입어 아산 탕정에 A2, A3 공장을 신설했다. 지난해에는 8조 원을 투입해 A4 공장도 건설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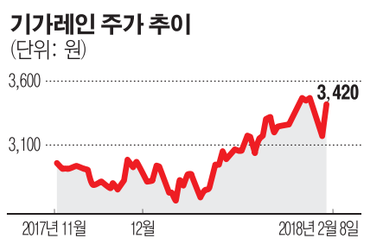
기가레인 관계사 위드멤버는 삼성 OLED생산라인에 프로브유닛을 공급 중이다. 프로브유닛은 디스플레이 패널 화상 검사 단계에서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소모성 부품이다.

고해상도 패널일수록 화소를 촘촘하게 배열하므로 전기적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터치 기능을 다양한 방식으로 패널에 통합하는 것도 회로 복잡도를 높인다.

한편 원익큐브, 상보 등과 함께 플렉서블 관련주로 꼽히는 기가레인은 반도체 산업 슈퍼사이클로 인해 장비트레이딩 시장이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기가레인 주가 추이
(단위: 원)



넥스트BT, 발모제 원료 등 伊 수출

子회사 네추럴에프앤피 비오냅과 독점공급 계약

넥스트BT의 자회사 네추럴에프앤피가 이탈리아의 비오냅(BIONAP)과 발모 외 2개 원료에 대한 독점 공급 및 제품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네추럴에프앤피는 발모 개선 소재 액트리세이브, 체중 감소 기능성 소재 모로실(MOROSIL), 혈행 개선 소재 베르가빗의 총 3가지 원료를 비오냅으로부터 국내 독점으로 공급받아 제품화를 추진하게 된다.

시칠리아 특산식물에서 추출한 기능성 소재 액트리세이브는 현재 발모 효능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기존 탈모 예방 약품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의 저하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는 것과 달리, 액트리세이브는 부작용이 없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하반기 시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국내 최초 모발 건강기능성 원료로의 등록이 기대된다.

체중 감소 기능성 소재 모로실은 레드오렌지의 한 종류인 시칠리아산 모로오렌지에서 얻은 추출물로, 지방세포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주는 활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현재 대규모 추가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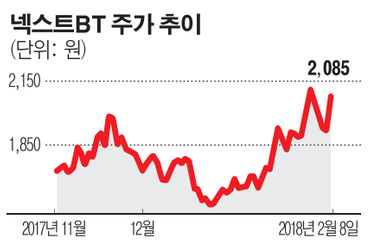
혈행 개선 소재인 베르가빗은 이탈리아 베르가못 오렌지에서 추출한 기능성 소재로 콜레스테롤 저하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됐다. 현재 미국 FDA 등록을 추진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향후 국내 건강기능성 식품시장에서 타사와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1997년 설립된 비오냅은 기능성 원료 연구 개발 전문기업이다. 지중해 시칠리아 식물과 과일 소재만을 연구해 신규 활성 물 질을 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능성 원료를 개발 및 제조해 세계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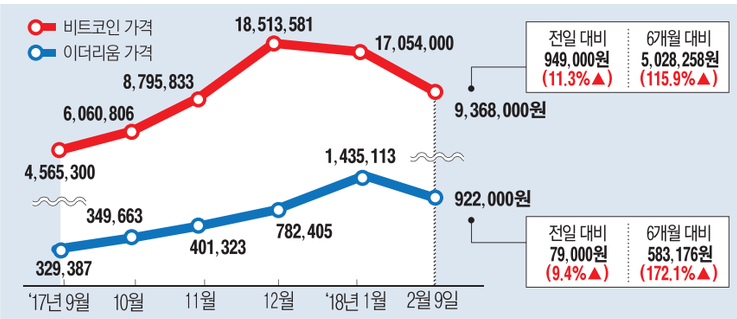
김우람 기자 hura@

넥스트BT 주가 추이
(단위: 원)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8년 2월 9일, 08: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1,479,000	411,000 (38.5%▲)	모네로	280,000	47,700 (20.5%▲)
리플	864	75 (9.5%▲)	비트코인골드	107,800	22,200 (25.9%▲)
라이트코인	169,300	17,200 (11.3%▲)	이더리움 클래식	24,300	4,090 (20.2%▲)
대시	686,000	102,000 (17.5%▲)	퀀텀	28,900	4,900 (20.4%▲)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이투데이 Media는 브랜드다

젊다! Passion
다르다! Difference
뛰어나다! Premium

이투데이 미디어는 타 매체보다 앞서서 세상의 흐름을 읽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최선의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투데이 미디어 임직원은 항상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꿈꾸며, '빅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02)799-2600 구독문의 02)799-2684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일간 창간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마이라이프
2015년 1월 1일 창간



경제접목 연예뉴스
비즈엔터
2013년 10월 15일 오픈

SAMSUNG

햇빛이 줄어드니까 안 마르고
기온이 내려가니까 꽁꽁 얼고
빨래 말리기 참 어려운 겨울
보들보들 더 뽀송해지고
빨래 먼지 걱정도 없고
어떤 빨래든 문제없이 살균되니까
겨울에 더 빛나는 인생템

건조기의 명가답게
삼성 건조기 2018 NEW



모델명 DV90M53A0QW

QR코드로 자세한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료는 낮게 시간은 짧게 인버터 저온 제습


빨래 먼지 걸러주고, 비우기 편한 올인원 필터



마른 빨래도 젖은 빨래도 99.99% 에어살균


다양한 환경에 맞춘 편리한 설치

12 YEAR WARRANTY — ON THE MOTOR & COMPRESSOR
안심하고 오래쓰는 12년 무상보증

※ 전기료는 표준코스 5Kg 부하, 자사 자체 시험치 기준으로 실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월 소비 전력량 201~300kWh 구간 기준) ※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대장균 99.99% 살균 intertek test 완료